



## 라니의 여행앨범 7 (동유럽-체,오)

©anee(라니)

소개글

## 목차

1	상해에서 프라하까지의 긴 여정	7
2	(프라하) 이제 시작이야.	13
3	(프라하) 네루도바 거리에서 심볼 마크를 감상하자.	18
4	(프라하) 흐라트차니 광장으로	31
5	(프라하) 프라하성 정문 앞에는 흐라트차니광장이...	38
6	(프라하) 로레타 성당	42
7	(프라하) 스트라호프 수도원	44
8	(프라하) 이 길을 꼭 걸어보세요.	47
9	(프라하) 근위병 교대식	54
10	(프라하) '프라하의 보석' 성 비트 대성당	57
11	(프라하) 프라하 성 (구왕궁, 성 이르지 교회 등)	60
12	(프라하) 프라하성의 동문으로 나와서 계단길 걷기	65
13	(프라하) 카를교의 말라스트라나 교탑	69
14	(프라하) 카를교 아래 캄파섬, 그리고 존 레논 벽	72
15	(프라하) 카를교, 30개의 성인 조각상	84
16	(프라하) 카를교에서	92
17	(프라하) 구시가 교탑에 올라 바라본 프라하 성과 카를교	98
18	(프라하) 블타바 강변에서 바라보는 프라하 성	104
19	(프라하) 루돌피눔	107
20	(프라하) 블타바 강변 걷기	109
21	(프라하) 유대인 지구로...(스페인 시나고그)	113
22	(프라하) 유대인 지구에서 (카프카가 있는 거리)	116
23	(프라하) 유대인 지구 (신구 시나고그와 유대인 공동 묘지)	120
24	(프라하) 유대인 지구 (마이셀 시나고그, 핀카스 시나고그)	124
25	(프라하) 카프카 생가	126

26	(프라하) 구시가 광장(틴성당, 천문시계, 구시청사탑, 골스킨스키 궁전)	129
27	(프라하) 알폰스 무하(뮌샤)의 그림을 보다.	134
28	(프라하) 화약탑과 시민회관	137
29	(프리하) 스메타나 박물관	142
30	프라하의 밤	145
31	프라하엔 이런 건축물이 있어요.	153
32	프라하에서 체스키 크룸로프까지	162
33	(체스키 크룸로프) 부데요비체문을 지나	168
34	체스키 크룸로프 성	172
35	(체스키 크룸로프) 성에서 바라본 구시가지 모습	184
36	(체스키 크룸로프) 거리를 걸으며...1	187
37	(체스키 크룸로프) 성과 구시가를 연결하는 이발사의 다리	190
38	(체스키 크룸로프) 블타바 강변에서	194
39	(체스키 크룸로프) 거리를 걸으며	201
40	(체스키 크룸로프)	205
41	(체스키 크룸로프) 전망 좋은 곳	208
42	(체스키 크룸로프) 아침 산책을 하며 안녕을 고하다.	210
43	체스키 크룸로프에서 찰츠부르크로	217
44	찰츠부르크에서 할슈타트로	223
45	할슈타트 호수에서	227
46	(할슈타트) 재하가 피아노 치던 그 성당에 또 다시...	231
47	(할슈타트) 아름다운 꽃무덤이 있는	236
48	(할슈타트) 재하의 그 집도 여전하더군	242
49	꿈의 그 곳 할슈타트	245
50	(할슈타트) 쓸쓸한 광장	248



51	(할슈타트) 호수 따라 걷기	251
52	(할슈타트) 표정이 있는 벽과 창문	256
53	(할슈타트) 기념품점 구경도 못하고...	257
54	(할슈타트) 길	258
55	(할슈타트) 세계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곳	260
56	(할슈타트) 기다려 줄래?	262
57	할슈타트 → 팔츠부르크	265
58	(팔츠부르크) 뜻밖의 시장 구경	273
59	(팔츠부르크) 미라벨 정원	281
60	(팔츠부르크) 미라벨 정원에서 나오면 모차르트의 집이...	284
61	(팔츠부르크) 잘자흐강을 따라 모짜르트다리까지...	286
62	(팔츠부르크) 아름다운 분수가 있는 레지덴츠 광장	297
63	(팔츠부르크) 모차르트 광장	299
64	(팔츠부르크) 모차르트가 세례를 받은 대성당	300
65	(팔츠부르크) 하이든이 잠들어 있는 성 페터 교회	305
66	(팔츠부르크) 메롱하는 창문이라더니...(팔츠부르크 현대 미술관)	311
67	(팔츠부르크) 게트라이데 가세에서 심심하게 걷기	312
68	(팔츠부르크) 호엔팔츠부르크 성에서 본 팔츠부르크의 전망	314
69	(팔츠부르크) 호엔 팔츠부르크 성에서...	318
70	(팔츠부르크) 호엔팔츠부르크 성에 마리오네트 인형들이...	323
71	(팔츠부르크) 사람, 사람, 사람들	327
72	Wien(빈)으로...	334
73	(빈)오토 바그너의 오타크링 역으로...	339
74	(빈) 그리스 신전 같은 국회의사당	344
75	(빈) 시청사 & 부르크 극장 (궁정 극장)	347

76	(빈) 빈대학& 베토벤의 <운명>이 탄생한 파스칼라티하우스	355
77	(빈) 보티브 교회 & 프로이트 기념관	361
78	(빈) 훈데르트바서 하우스, 지금 만나러 갑니다.	366
79	(빈) 훈데르트바서의 칼케빌리지에선 화장실을 잊지 마세요.	372
80	(빈) 훈데르트바서만을 위한 공간 쿤스트하우스 빈	378
81	(빈) 훈데르트바서의 쓰레기 소각장	383
82	(빈) 오토 바그너의 메다옹하우스 & 마올리카 하우스	390
83	(빈) 빈에서 가장 아름다운 카를 교회	397
84	(빈) 오토 바그너의 카를스플라츠역	400
85	(빈) 제체시온, 클림트의 베토벤 프리즈를 보지 못했어도...	404
86	(빈) 카페 무제움&오페라 하우스&케른트너거리	409
87	(빈) 하스 하우스와의 만남... 그리고 슈테판 성당	418
88	(빈) 그라벤 거리의 페스트 기념주와 성 페터 교회	421
89	(빈) <장식은 범죄다> 아돌프 로스의 로스 하우스	424
90	(빈) 벨베데레 궁전으로	433
91	(빈) 클림트의 <키스>를 보다. (더불어 에곤실레도 만나고...)	443
92	(빈) 벨베데레 상궁(19.20세기 회화관) 내부의 모습	454
93	빈에서 바르샤바로	458

푸둥국제공항 도착.

덥으로 여행할 수 있어 좋기도 했지만 끔찍히도 싫은 이 더위에서 탈출할 수 있다 생각하니  
솔직히 떠남에 대한 섭섭함은 별로 들지 않는다.

'상하이 ~ 미안해.'

'다음엔 지금처럼 덥지 않을 때 너를 다시 찾아오마.'

'그 때가 언제가 될진 나도 몰라.'

'아마 60살 아님 70살쯤... ㅎㅎ'



▲  
상하이 푸둥국제공항



떠날 준비를 마쳤다.



상하이까지 올 때는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했는데 이제부터 알이탈리아 비행기로...

알이탈리아 비행기를 이용한 소감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다음엔 절대 이용하고 싶지 않다는 거.

여러 가지로 맘에 들지 않았다.

특히 첫번째로 준 기내식을 먹고 된통 체해 여행내내 제대로 못먹고 고생한 걸 생각하면..ㅜㅜ

덕분에 4kg의 체중 감량에 성공했다.



창밖을 내다 보니 커다란 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웬만한 높이의 산들은 평평하게 보이는데 아무래도 알프스의 산맥의 어디쯤이 아닐까.  
 밀라노가 꽤 가까워졌을 것이다.



13시간의 비행 끝에 드디어 밀라노가 보인다.

간절히도 원하는 이탈리아 땅을 이렇게라도 밟아볼 수 있다 생각하니 한없이 기쁘면서도 한편으론 깊은 한숨이 나온다.

내가 그리도 여행하고 싶은 이탈리아에서 발도장 하나 겨우 찍고 떠나야 하다니...

'언젠가는 내 기필코 이탈리아 너를 속속들이 헤집고 다닐 날이 올거야. 기다려 줘 꼭~'



밀라노 공항. **프라하**를 향할 비행기를 타기 위해 대기중



작은 비행기다.

지금까진 큰 비행기만 탔었는데 작은 비행기를 타려하니 좀 불안한걸.



기상까지 안좋은지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린다.  
 첫번째 착륙시도를 실패한 것 같다. 캄보디아 비행기 추락사건이 자꾸만 떠오른다.  
 '내가 이렇게 죽는 건가???!!'  
 끝없이 이어지는 불안, 불안, 불안.  
 휴~ 다행스럽게도 비행기가 무사히 착륙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프라하 루지네 국제공항에 도착, 집을 찾기 위해 기다리는 중.



밖은 캄캄한데 부슬부슬 비까지 내리고 있다. 밤 12시가 넘은 듯 하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픽업을 하러와주었기에 쉽게 호텔에 도착할 수 있었다.

' 아~ 행복하다. 내일부터 진짜 여행 시작이야. 잠 좀 자두자구.'

(밤이라 사진을 찍을 수 없어 호텔 사진은 아침에 찍은 사진으로 ...ㅎㅎ)



본격적인 여행 일정의 첫날 아침,  
쌀쌀한 아침 공기가 좋아 호텔 주변을 산책 했더니 기분이 진짜 상쾌하다.  
'자,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 곳은 구시가지에서 약간 떨어진 곳, 시내로 나가기 위해 버스를 기다린다.

'일년 전의 프라하는 참 좋았었는데 지금 다시 보면 어떨까.'

'작년에 보았던 모든 것들이 그대로 잘 있을까.'

'니가 궁금해. 궁금하다구.'









헤매고 헤매 구시가지에 도착, **말라스트라나** 광장이다.

'**미쿨라세교회**도 여전히 잘 있군.'

'그런데 좀 이상해.'

'일년전의 프라하가 상큼한 **스카이 블루**의 빛깔이었다면

지금은 왠지 칙칙하고 우울한 **블루** 빛으로 느껴져.'

'날씨 탓일까?? 그래 날씨 탓일거야.'



*네루도바 거리에서 심볼 마크를 감상하자.*

팔츠부르크에 게트라이데가세가 있다면 프라하에는 네루도바거리가 있다.

다시 말해 이 거리는 주소가 없던 시절 거주자의 직업을 표시한 문 위의 심볼 마크들이 특징인 거리라는 뜻으로 많은 여행자들은 이 심볼 마크를 보기 위해 이 거리를 찾게 된다.

이 거리가 어떤 거리인지 모른다해도 대부분의 여행자들은 프라하 성에 오르기 위해 이 거리를 지나게 되는데 나의 경우는 트램을 이용해 프라하성에 올랐기 때문에 작년에 놓치고 보지 못했던 곳이다. 이 곳을 놓친 것을 두고두고 후회했기에 프라하 여행의 시작은 이 곳부터 하기로 했다.

보물찾기 하듯 심볼을 찾는 재미가 쏠쏠 했는데 돌아와 사진 정리를 하다보니 여전히 놓친 심볼들이 많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가지 뭐.'



말라스트리나 거리에서 프라하 성으로 이어진 언덕길인 네루도바 거리.







길 양쪽에 아기자기한 기념품샵이나 세련된 레스토랑, 카페 등이 줄지어 있으며 바로크 양식의 근사한 집들도 있다.





마리오네트 가게. 그림이 있는 상점의 덧문이 멋지다.



47번의 '2 개의 태양'이라는 이 저택은 이 거리 이름의 유래가 된 **얀 네루다**가 30년동안 살았던 집으로 유명한데 그는 이 곳에서 '**말라스트리나 이야기**' 를 집필했다고 한다.





귀족의 저택이었던 바로크 스타일의 모르진 궁전인 '루마니아 대사관'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발코니를 받들고 있는 멋진 **무어인** 조각은 낮과 밤을 상징 상징한다고 한다.



▲ '독수리'



▲ '이탈리아 대사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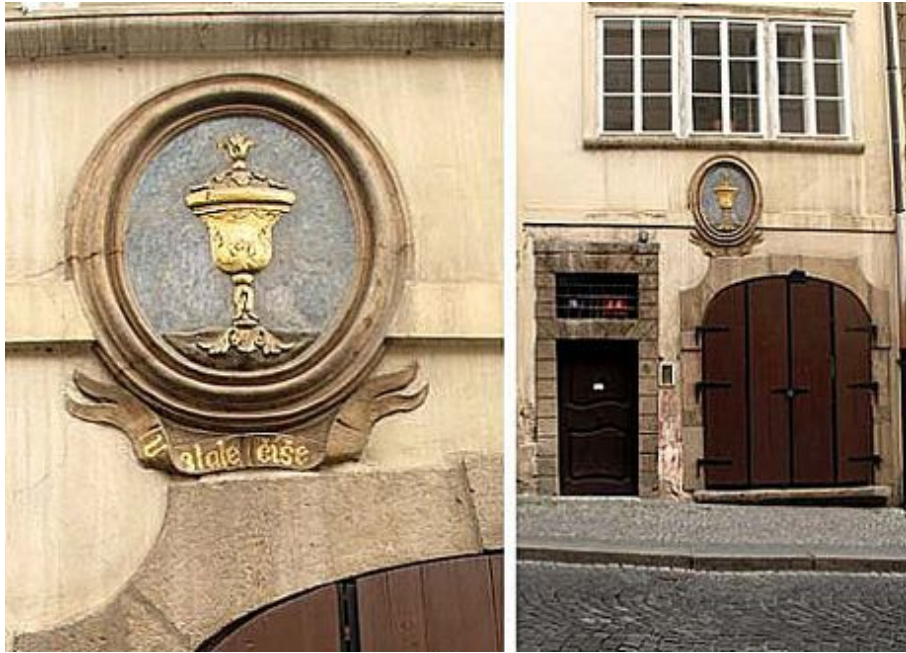




▲  
11번 '붉은 양'



▲  
12번 '3대의 바이올린' - 바이올린을 만들던 장인의 공방으로 현재는 카페로 사용되고 있다.



▲  
16번 '금잔'



▲  
49번 '백조'



▲ '메두사의 집'



▲  
**'붉은 사자의 집'** - 사자는 유럽에서 왕실이나 권력을 나타내므로 **사자**가 **금잔**을 들고 있는 심볼이 있는 이집은  
 과거 권력가가 살았던 저택이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  
'바다가재'



▲ '황금수레'

▲ '황금독수리'



▲  
'황금열쇠'



▲  
네루도바 거리를 걷다보면 갈래길이 나오는데 이 길로 올라가면 **프라하 성**이 나오고 다른 길로 올라가면 **스트라호프 수도원**이 나온다.  
계단 위의 하늘색 집은 프라하의 연인에서 전도연의 집으로 나왔던 곳.

아래 사진은 스트라호프 수도원에서 내려오며 보았던 집들이다.



▲  
**'3개의 심장을 가진 집'**







**프**라하성에 오르는 길로는 계단길이 아닌 반대쪽 길을 택했다.

이왕이면 프라하 시내를 내려다 보며 걷고 싶었기 때문.

작년에 보았던 그 환상적인 하늘이 배경으로 펼쳐졌다면 더할나위 없이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었을텐데 오늘 보는 하늘은 볼 속에 잔뜩 비를 머금은 시커먼 구름때들 때문에 영 '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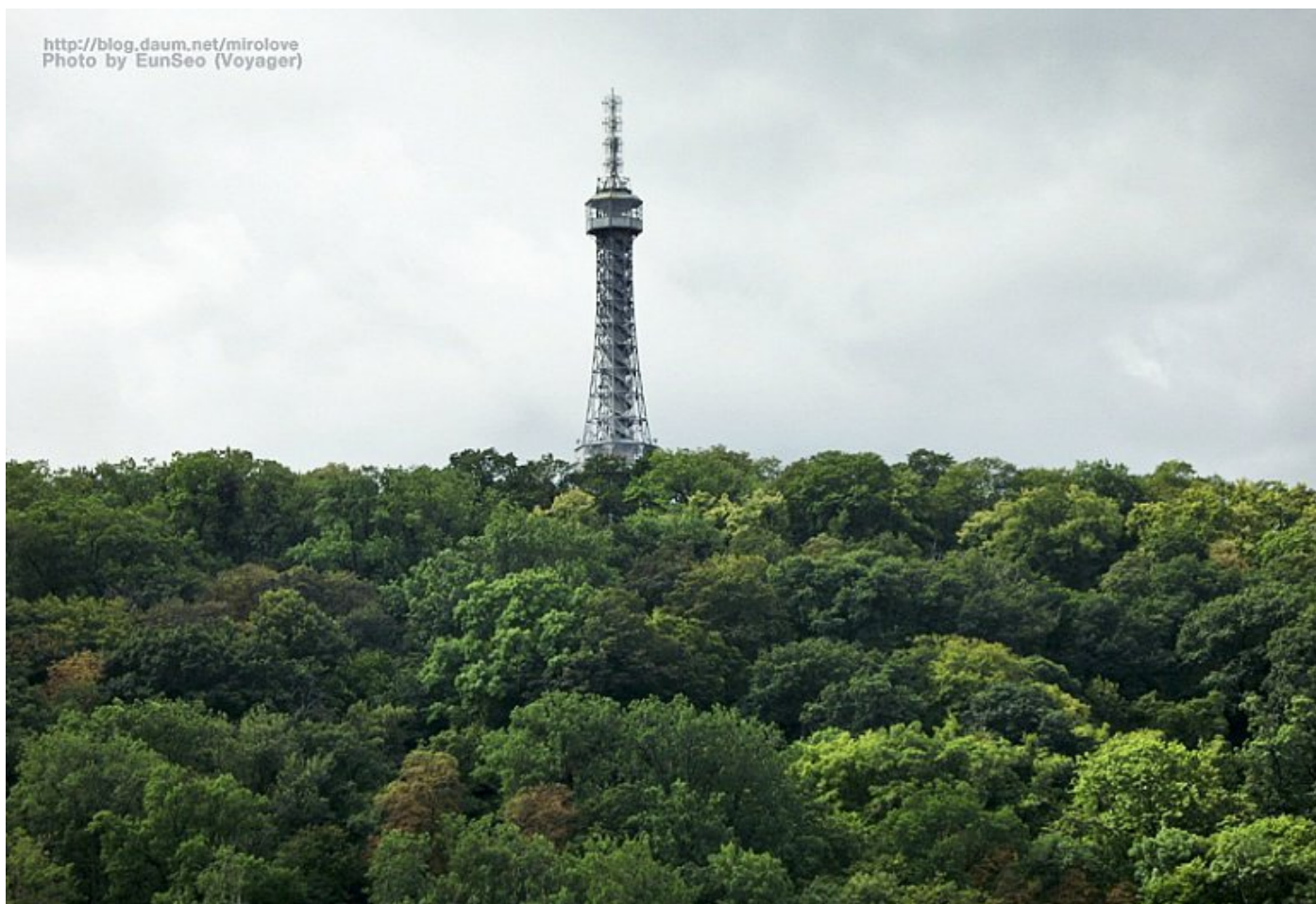
하루 종일 저 심술 맞은 구름이 쫓아다니지 않기만을 빌어봐야겠다.

휴~ 속.상.해.



흐라트차니광장으로 go go.





광장으로 오르다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니

페르진트 전망대가 보인다.

꼭 올라가 보려고 했는데 나중에 다리가 너무 아파서 포기한 곳.

'또 한번 프라하에 갈 수 있다면 다음엔 저 곳부터 올라볼거야.'



프라하 시내가 조금씩 내려다 보이기 시작한다.





▲  
올라오던 길을 되돌아보니 계단 길이 보인다.





<http://blog.daum.net/mirolove>  
Photo by EunSeo (Voyager)



▲  
프라하 성 정문





▲  
흐라트차니 광장

**프**라하 성 앞에 자리한 **흐라트차니 광장**.

1726년에 세워진 **페스트 기념 기둥**을 중심으로 주위를 각 **궁전**이 에워싸고 있다.



프라하 성 정문





<http://blog.daum.net/mirolove>  
Photo by EunSeo (Voyager)



▲  
흐라트차니 광장을 둘러싼 궁전들



▲  
페스트 기념 기둥





☞ 다음 행선지는 로레타 성당과 스트라호프 수도원입니다.

작년에 못봐서 아쉬웠던 곳 중 두 번째로 찾은 곳은 **로레타 성당**과 **스트라호프 수도원**.

흐라트차니 광장에서 로레타 성당이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되는 곳으로 걷고 또 걸었으나 도무지 맞는 길을 걷고 있는 것인지 자신도 없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봐도 모르겠다는 대답뿐이라 중간에 되돌아 갈까 망설이기도 했던 곳이다. 프라하에선 수시로 마주치는게 한국인인데 여기서 도무지 **한국인**을 볼 수가 없다.

'아니, 왜 필요할 땐 없는거냐구~'

그렇게 고민하며 아쉬워 하며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며 걷다 보니 반갑게도 사진 속에서 본 것과 유사한 건물이 눈에 들어 온다. **로레타 성당**이다.



**로레타**에 관해 책에서 읽은 내용 중 유일하게 생각나는 것은 **로레타**의 종이 연주를 한다는 거였다.

나중에 책을 뒤져 다시 읽어 보니 매일 8시부터 18시 정각에 **로레타**의 종 27개가 '**마리아의 노래**'를 연주한다고 쓰여 있다. 하지만 나는 그 종소리를 듣지는 못했다.

내게는 프라하에서 보고 싶은 게 아직도 너무 많이 남아 있었고 내게 주어진 시간은 겨우 오늘 하루 뿐.

여기서 마냥 시간을 지체하고 있을 수는 없는 처지였다.

'아쉽다. 아쉬워.'

로레타에 대해 책에서 읽은 내용을 좀 더 옮겨 보자면 로레타는 성당의 이름이 아니고 마당 중앙 부분에 '산타카사'라는 독특한 구조의 예배당을 가진 성당을 일컫는 말이라고 한다. 이것은 그 당시에 유행하던 양식으로 이탈리아의 산타카사 수도원을 모델로 하여 세운 일종의 종교단지라는 것.

성당의 내부는 늘 비슷 비슷해 보인다는 생각에 생략해 버렸는데 성당 내부에 관한 설명을 다시 읽어 보니 보고 올 걸 하는 후회가 슬며시 밀려 온다.

☞ 스트라호프 수도원을 찾아 다시 출발~



**스트라호프** 수도원을 찾는 것 또한 쉽지 않다.

이제 시작인데 다리가 어찌나 아프던지  
그냥 포기할까 싶은 마음과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하는 마음이 오락가락 한다.  
여기서 완전히 지치면 다른 곳을 다 포기하게 되는 불상사가 생길까도 싶고,  
내가 걷고 있는 길이 맞는 길이라는 확신도 없고...  
때는 벌써 점심시간...  
초초하다.

·  
·  
·

휴우 ~ 하늘이 도왔나 보다. 마침내 **수도원** 앞에 이르렀다.  
힘들긴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맞는 길을 찾아 걸어 온 내 자신이 대견스럽다.  
수도원 구경을 마치고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내려 갔다.

어?! **네루도바** 거리잖아.  
이게 뭐야.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있었다구???  
으으으..... 찻~



수도원 입구.

스트라호프 수도원은 1140년에 보헤미아 왕 블라디슬라프 1세가 건축한 수도원이라고 한다.

"와우! 그 오랜 역사에 입이 찻억~ 벌어지려 하네."



입구로 들어서니 두 개의 뿔족탑이 보인다.





스트라호프 수도원에 있는 **민족문화 박물관**

스트라호프 수도원은 오래된 사본과 방대한 장서를 자랑하는 곳이므로

도서관을 들어가 봐야 스트라호프 수도원을 봤다고 할 수 있는건데

나는 웬지 도서관을 구경삼아 들어가 본다는게 자신이 없어서 머뭇거리다 그냥 발길을 돌려 버렸다.

(이 곳에서 유일하게 들어가 본 곳은 화장실입니다. 유료화장실...ㅋㅋ )



스트라호프 수도원의 이 곳 저 곳을 구경하며 돌아보니

들어올 때의 문 말고도 다른 문이 보인다.

문 밖으로 보이는 길...

그 길이 어디로 향하는 길인지 몰라 잠시 머뭇거렸지만  
고즈넉하고 푸르름이 있는 그 길에 마음을 뺏겨 그냥 걸어보기로 했다.



▲  
저 문을 나오면...



길이 보인다.  
다리가 많이 아프면 잠시 쉬어갈 수도 있는 정다운 길



길 옆 노천 카페 마당에선 프라하 시내를 내려다 볼 수도 있고,  
커피를 즐길 수도 있고,



조금 더 내려오면 훨씬 더 멋진 길을 만날 수 있다.  
 발만 아프지 않았다면 정말 걸어 보고 싶었던 저 길  
 이 길을 따라 가면 **페트르진** 공원으로 갈 수 있겠지.  
 아.쉽.다.





가던 길을 계속 내려 간다.  
인적 드문 곳에서 만난 사람은 그냥 반갑다.  
한마디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도...



초록 숲 속 빨간 지붕들





잠시나마 발의 통증조차 잊게 해준 고마운 길, 마법의 길





이 길도 처음 걷는 길인데 왠지 낯설지 않아.

.

.

.

어라!!! 네루도바 거리로 내려가는 길???!!!

하~~~ 길은 다 통한다더니 정말이었구나.

**로**레타 성당과 **스트라호프** 수도원을 보는데 생각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소비했더니 마음이 바쁘다.

'프라하 성 은 작년에 다 봤으니까 그냥 건너 뛸까.'

' 아니야. 다 봤어도 프라하 성을 안보고 가면 그게 또 후회될거야.'

생각은 얹치락 뒤흠치락하고 있었지만 몸은 이미 **흐라트차니** 광장에 있다.

'그래 보고 가는게 좋겠어. 훑어 보기만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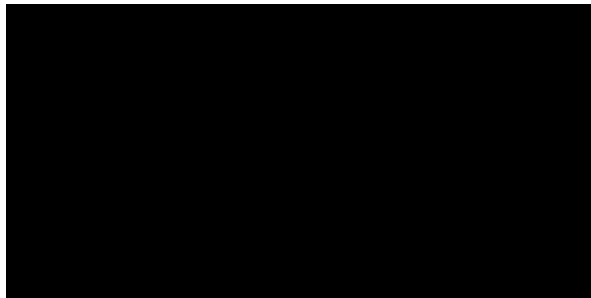
**프라하 성** 정문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게 보인다. **근위병 교대식**이 있나 보다.

가까이 가보니 **근위병 교대식**은 이미 진행중.

모여있는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 갈 수가 없다. 키가 작아 도무지 보이는 것도 없고.

교대식을 보려고 걱정했으면 미리 와서 좋은 자리를 차지했을 텐데.....

포기하고 성으로 들어 가다가 아무래도 미련이 남아서 멀리서 나머지 부분을 지켜 보았다.



그나마 교대식 하는 사진은 하나도 못 찍고 동영상 촬영만 했는데  
줌으로 당겨 찍었더니 영상의 흔들림이 심하다.ㅜㅜ







'**프**라하의 보석'이라 불리우는 프라하 고딕 양식의 대표적 건축물인 **성 비트 대성당**.

그 규모가 어찌나 큰지 아무리 애를 써도 나의 카메라에는 보기 좋게 담을 수가 없다.

(그 규모를 수치로 나타내자면 길이 124m, 너비 60m, 탑 최고 높이 100m라나.)

'아~ 나도 좋은 카메라 갖고 싶어.'

(**성 비트 대성당**에 대한 설명은 Czech '06 에 자세히 썼으므로 생략해야겠다.)









## 하나의 작은 도시와도 흡사한 프라하 성

프라하 성에는 성 비트 성당 외에도 구왕궁과 성 이르지 교회, 황금 소로 등이 있다.

(이 것도 자세한 내용은 Czech '06 에 있으므로 설명 생략)





코르 분수와 성 십자가 예배당이 있는 제2정원.  
프라하 성의 정문을 지나 마티스 문을 지나면 볼 수 있다.



구왕궁





▲  
성 이르지 교회



작년엔 보지 못했던 건물. 좀 더 알아봐야겠다.



흑탑?

작년에 **달리보르탑**을 돌아봤는데 겉모습은 생각이 안나지만  
**달리보르탑**은 **황금소로**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마도 저 탑은 **흑탑**이 아닐까 추측해 본다.

아님 할 수 없고... ㅎㅎ

황금소로는 작년에 보았다는 이유도 있지만 공사중이라 생략.



**프**라하성을 대강 돌아본 후 東門을 통해 밖으로 나왔다.

東門을 나오면 프라하 시내의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곳과 계단길을 만나게 된다.

나는 사실 프라하 시내 감상보다는 계단길의 노점상과 거리의 악사들의 연주를 들을 수 있음에 더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어쩐 일인지 계단길이 텅텅 비어 있다.

'뭐야. 날씨가 안좋아서 그런거야.'

'에이C! 작년에 본 것만 못한 것 같아.'

'두 번째라 감동이 덜 할 수도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봐도 그런 것 같다구.'

비가 오락가락하는 우중충한 날씨, 그로 인해 쓸렁해진 거리,

(거리의 예술가들이 집에서 빈대떡을 부쳐먹고 있나 많이들 걸근하셨단 말이지.)

게다가 공사중인 곳은 왜 이렇게 많냐구요.

'공사도 돌아가면서 해야지 이렇게 한꺼번에 하면 어떡해.'

'비싼돈 들여 왔는데 뭘 보라구.ㅏㅏ '

'휴~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투덜이었던거지??'



▲  
프라하 성의 동문



▲  
프라하의 전망을 감상 중인 사람들



텅 빈 계단  
(깨끗해 보이긴 하는 것 같다)





계단에서 내려다 보는 전망



▲  
어??? 이건 투덜쟁이의 표정이 아닌데..

**프**라하 성에서 내려와 다음 코스로 가고자 한곳은 **발트슈타인 궁전**이다.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열린 문으로 뚫끔히 들여다 보다 경찰 같은 사람과 눈이 마주쳤다.

죄 지은 것도 없는데 가슴이 떨려서 들어가질 못하겠다 사진 속에서 본 그 곳인지 확신도 서지 않고.

만약 이 집이 이 나라의 높은 양반네 집이면 어쩔거냐구.

괜히 오해 받으면 유창하게 영어로 변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아쉽지만 가던 길 계속 가게 신상에 이로울 것 같아 카를교 쪽으로 =3=3=3



**카를교**의 **말라스트라나 교탑** 앞. **카를교**의 양쪽에는 각각 탑이 하나씩 서있다.

구시가 쪽의 전망을 보고 싶으면 이 쪽 탑에 올라야 하고

**프라하 성** 쪽의 전망을 보고 싶으면 반대편 쪽에 있는 **구시가 교탑**에 올라야 한다.

나는 프라하성 쪽을 보고 싶으니까 이 곳은 그냥 통과.



말라스트라나 교탑을 통과하면 '프라하 관광의 꽃' 카를교다.





▲  
카를교 위에서 한 것.

## 카를교 아래엔 캄파섬이 있다.

프라하를 찾는 사람들 중 대다수의 사람은 카를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카를교 아래에 캄파섬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듯하다.

그래서인지 캄파섬은 언제나 북적대는 카를교와는 달리 대체로 한적한 느낌.

육지와 워낙 가까워서 섬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이 곳은 원래는 모래섬이었는데 지금은 도심의 일부가 되어 2만평의 면적에서 반은 강가를 중심으로 카페와 레스토랑이 들어서 있고 나머지 반은 공원으로 꾸며져 있다.

약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인적 드문 캄파섬으로 내려가 한적함을 즐겨보자.

노천카페에서 한잔의 차를 즐길 수도 있고 나무 그늘 아래 벤치나 푸른 잔디밭에서 피곤한 다리를 쉬게 할 수도 있으니까.



카를교에서 내려다 본 캄파섬



▲  
캄파섬으로 내려오는 카를교의 계단



▲  
캄파섬에서 보는 말라스트라나 교탑





▲  
말라스트라나와 캄파섬을 가르는 수로에서 작은 배를 탈 수도 있다.



▲  
이 쪽은 말라스트라나 교탑에서 구시가 쪽을 바라볼 때 카를교의 오른쪽.  
나는 존 레논 벽을 찾기 위해 레기교 쪽 방향으로 걸어가야겠다.



존 레논 벽을 찾아 한적한 골목을 걷고 있는데 형제처럼 보이는 두 꼬마가 놀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녀석들의 노는 모습이 귀여워 한참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데 녀석들 말고 눈에 들어오는 그림이 있다.  
 천진난만한 꼬마들과 대비를 이루는 19금이 불현듯 떠오르는 그림이...ㅎㅎ



존 레논 벽이다.  
 인적이 거의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나처럼 이 곳을 보고 싶어했던 누군가가 먼저와 진지하게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그냥 낙서일 뿐일 수도 있겠지만 내 눈엔 마냥 멋져 보인다.





존 레논벽 바로 옆 담장에는  
 "독도는 한국 땅 (south Korea) 고구려는 한국역사"  
 라는 글이 담장을 다 차지하며 큼직하게 쓰여 있다.  
 이 글을 써 놓은 이는 정말 애국심이 넘치는 이일까?



.....

.....



수채(?)가 있는 수로의 모습이 낭만적으로 느껴진다.



공원 쪽은 더더욱 한적한 모습





블타바 강변에서 바라본 카를교



한 폭의 그림 같은 강변의 모습



▲  
블타바 강



▲  
카를교와 유람선



블타바 강변에서 바라본 구시가지 쪽 모습



카를교와 블타바강





캄파섬에서 바라본 카를교와 블타바 강의 모습은  
오래도록 잊지 못할 너무나 멋진 모습이었다.



카를교의 양쪽 난간에는 1683년부터 세워졌다는 30개의 **聖人 조각상**이 있다.

대부분 체코 성인들의 조각상이라 한다.

작년에는 유명하다는 몇 개의 조각상만 카메라에 담아 왔는데 이번엔 작정하고 30개의 조각상 모두를 카메라에 담아왔다.

시간 날 때마다 하나 하나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

☞ 구시가 교탑 쪽의 조각상부터 말라스트라나 교탑 쪽의 조각상까지 순서대로



성모 마리아와 성 베르나르두스 상  
(1709년작의 복제)



성 이브 상  
(1711년작의 복제)



성모 마리아와 성 도미니쿠스 , 토마스 아퀴나스 상  
(1708년작의 복제)



성 바르바라, 성 마르가리타, 성 엘리자베트  
(1705년작)



청동 십자가와 성모마리아, 성 요한 상  
(1629년작)                      (1861년작)



피에타 상  
(1859년작)





성 안나, 성 모자 상  
(1707년작)



성 요제프 상  
(1854년작)



그리스도와 메토디우스 상  
(1938년작)



성 프란체스코 자비에르 상  
(1711년작의 복제)



세례 요한 상  
(1855년작)



성 크리스토포루스 상  
(1857년작)



성 노베르트, 바츨라프, 지기스문트 상  
(1855년작)



보르자의 성 프란시스코 상  
(1710년작)



성 안 네포무츠키  
(1683년작)



성 루드밀라와 바츨라프 상  
(1720년작)



파도바의 성 안토니우스 상  
(1710년작)



성 프란체스코 상  
(1855년작)





상 타데오의 유다 상  
(1708년작)



성 빈켄티우스 페레리우스와 프로코피우스 상  
(1712년작)

바깥쪽의 '로랑의 기둥'에 브룬티크 상  
(1886년작)



성 아우구스티누스 상  
(1708년작의 복제)



톨렌티노의 성 미쿨라세 상  
(1708년작)



성 키에타누스 상  
(1709년작)



성 루트가르디스 상  
(1710년작)



성 베네딕투스 상  
(1714년작)



성 아달베르투스 상  
(1709년작)



성 비투스 상  
(1714년작)



마타의 성 요한과 바로프의 성 펠릭스, 성 이반  
(1714년작)



구세주와 쌍둥이 아들 성 코스마와 다미아노 상  
(1709년작)



성 바츨라프 상  
(1857년작)



캄파섬의 여유로움을 뒤로 하고 다시 카를교 위로 올라왔다.

일년 전이나 지금이나 카를교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비고 있건만  
이상하게도 전에 느꼈던 활기는 잘 느껴지지 않는다.

'왜 그럴까. 이것도 날씨탓일까??'



블타바 강과 레기교



유람선이 떠다니는 그림 같은 블타바 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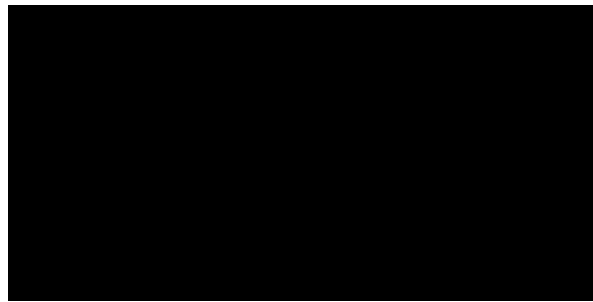
카를교의 사람들



아기자기한 수공예품들을 구경하는 것도 카를교에서 느끼는 재미 중 하나이다.







흥겨운 연주를 들으니 가라앉았던 기분이 좀 나아지는 것 같다.



꼭 올라가 보리라 계획했던 구시가 교탑이 보인다.  
프라하 성을 배경으로 사진 한 장 남기고 부지런히 구시가 교탑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카렐교 끝에서 바라본 프라하 성





블타바 강 맞은편,

말라스트라나와 프라하 성의 아름다운 전경을 감상하고 싶다면 구시가 교탑에 꼭 올라가 보세요.





구시가를 지켜온 방어문이었던 구시가 교탑.  
14세기말에 건설된 아름다운 고딕 양식으로  
탑에는 왼쪽부터 카를4세, 성 비투스, 바츨라프 4세 상이놓여 있다.



탑의 중간 중간엔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창문이 있고  
탑의 4분의3 정도(내 느낌으로)를 올라가면 매표소가 있다.  
혹 공짜인 줄 알고 올라간 사람이라도 표를 사지 않고 그냥 내려 가는 경우는 거의 없을 듯.  
거기까지 올라간게 억울하잖아.



탑의 전망대에서 바라 본 **말라스트라나**와 **프라하 성**.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멋지다.

힘들었지만, 입장료도 생각보다 비쌌지만,

잘 올라왔다.





▲  
블타바 강과 마네스프교



▲  
성 프란시스 교회

▲  
파사드가 아름다운 성 살바토르 교회





▲  
카를 4세 상



구시가 교탑에서 내려와 다음 행선지로 정한 곳은 **유대인 지구**.

**유대인 지구**로 가기 위해 **블타바 강변**을 걸었다.

강변엔 나무 그늘과 함께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벤치도 마련되어 있다.

**프라하 성**을 감상하기에 안성맞춤인 곳.

프라하에 가거든 블타바 강변을 걷는 일도 잊지 마세요.



<http://blog.daum.net/mirolove>



<http://blog.daum.net/mirolove>



<http://blog.daum.net/mirolove>



<http://blog.daum.net/mirolove>



**프**라하 구시가지의 **블타바 강** 강둑에 자리하고 있는 **루돌피눔**은 1870년대 초반 한 **금융회사**가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설립을 계획, 공개경쟁에서 선발된 건축가 **요제프 지테크**(Josef Zitek)와 요제프 술츠(Josef Schultz)에 의해 1884년 신르네상스 양식의 건물이 완성된 건물이다. **루돌피눔**이란 이름은 개관식 때 참석한 합스부르크가 황태자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며 **작곡가 드보르작**(Antonín Dvořák)의 이름을 딴 메인 홀 드보르작 홀 외에 작곡가 겸 바이올리니스트 **요제프 수크**(Josef Suk)의 이름을 딴 수크 홀 등의 작은 **연주회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건물 앞 광장에는 **드보르작**의 동상이 서 있고, 건물 꼭대기 난간에는 **바흐,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 멘델스존, 슈만** 같은 유명한 음악가들과 화가, 조각가, 건축가들의 조각상이 일렬로 장식되어 있다.



▲  
루돌피눔



▲  
난간에 장식된 조각상들



▲  
건물 앞에 서 있는 **드보르작** 동상

2007.07.30

## Ranee in Praha

-블타바(몰다우) 강변-



8월에 걷는 가을길  
무더위 때문에 고초를 겪고 있는 요즘,  
프라하, 니가 그리워.





▲  
Cechuv most 와 유람선 선착장  
두번째 찾아온 이 곳에서 끝내 못타본 유람선.



▲  
Cechuv most



▲  
Cechuv most 에서 프라하 성을 배경으로



**블타바** 강변을 건다가 **Cechuv교**가 보이는 곳에서 오른쪽 길로 들어서면 **파르지주스카** 거리가 나오는데 이 곳이 **유대인 지구**이다. **유대인 지구**를 둘러보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굳이 **Cechuv교**가 있는 곳까지 오지 않고 **마네스프교**에서 오른쪽으로 꺾어져도 됐겠지만 나는 **Cechuv교**가 보고 싶어 이 곳까지 걸어 왔다. **파르지주스카**거리로 들어서면 왼쪽에 **인터콘티넨탈 호텔**이 있고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곳이 나온다. 점심도 제대로 못먹고 목도 타는데 호텔 앞에 마침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다. 좀 비싸긴 했지만 아이스크림을 사들고 돌의자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다.



▲  
인터콘티넨탈 호텔



▲  
싸지 않은 아이스크림 먹기

작년엔 프라하 물가가 참 싸다고 좋아했었는데  
일년 사이에 프라하 물가가 장난 아니게 오른 것 같다.



힘들지만 다시 기운을 내 찾아간 곳은 스페인 시나고그.  
유대인 거주 지구(게토)의 중심 거리였던 두슈니에 있다.





스페인계 유대인에 의해 지어진 시나고그가 헐리고,  
19세기 후반에 새롭게 건설된 것이라 한다.  
내부가 그라나다의 알람브라 궁전 연상시킬만큼 아름답다는데 들어가 보지는 못했다.



2007.07.30

### Ranee in Praha

-카프카가 있는 거리-





### 카프카 기념비

2003년 12월3일에 프라하 시에서 카프카를 기리기 위해 건립한 기념 조각상.

약 3.75m 높이에 800kg 무게의 이 청동 조각상은

체코의 조각가 야로슬라프 로나가 2년 8개월에 걸쳐 조각한 것이다.

머리가 없이 걷고 있는 인물의 어깨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은

카프카의 소설 '어떤 싸움의 기록' 에서 영감을 얻어 조각한 것이라고 한다.

위치: Dusni와 Vezenska Street 모퉁이에 있다.





말과 자동차가 함께 다니는, 중세와 현대의 거리



저 하이힐은 무슨 의미???  
아무튼 재미있는 거리다.





자동차의 탈을 쓴 세발 자전거.  
다리가 아파 죽을 맛인데 진짜 부럽군.

2007.07.30

\* Rane in Praha

-유대인 지구-

고딕 양식의 **신구 시나고그**는 유대인 지구에 있는 여러 개의 시나고그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곳이라 작년에도 와 봤던 곳이다.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유대인 교회 중 하나로 1270년경 세워졌으며 1389년 반유대인 폭동 당시 살해당한 유대인의 흔적을 보존하기 위해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남겨두고 있다고 한다.



▲  
프라하를 대표하는 고딕 양식 건축물 중의 하나인 신구 시나고그.  
지붕의 모양이 참으로 독특하다.

**신구 시나고그**의 이웃에는 이전에 **유대인 지구의 집회소**였던 건물이 있다. 18세기에 재 건축된 **로코코 양식**의 건물인데 탑에는 두 개의 **시계**가 붙어 있다. 아래 부분의 시계는 시계 바늘이 거꾸로 도는 유대 식의 시계이며 숫자도 히브리어로 되어있다.



유대인 지구의 집회소였던 건물



거꾸로 도는 유대식 시계(아래쪽)



좀 더 걸어가면 **유대인 묘지**가 있다. 15세기에 설립된 오래된 묘지로 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묘지에는 약 1만 2000개의 묘석이 있으나 매장되어 있는 사람은 10만명 정도라고 한다. 유대인은 다른 장소에 매장될 수 없었기 때문에 매장할 공간이 없으면 흙을 운반해와 겹쳐서 매장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유대인 묘지 입구에 있는 **시나고그**는 현재 유대인 박물관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보헤미아**와 **모라비아**의 유대인들에 관한 18세기말부터 2차 대전까지의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유대인 공동 묘지 입구에 가까워졌다.



▲  
옛 유대인 공동 묘지

2007.07.30

\* Rane in Praha

-유대인 지구-



마이셀 시나고그

16세기 말 마이셀로바 거리에 건설된 교회로

현재의 모습은 19세기말부터 20세기초에 네오고딕풍으로 개축된 것.

교회 이름은 유대교 사제이자 자본가였던 마이셀에서 유래하는데  
마이셀은 프라하의 유대인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한 인물이라고 한다.





### 핀카스 시나고그

1535년에 후기 고딕 양식으로 세워진 프라하에서 2번째로 오래된 시나고그.

제2차 세계대전 후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살해된

보헤미아와 모라비아 출신의 유대인 희생자들을 기리는 기념관이 되었다.

2007.07.30

\* Ranees in Praha

-카프카 생가-

마이스넬로바 거리에서 구시가 광장 쪽으로 건다보면 왼쪽편에 카프카의 생가가 있다. 1883년 7월 3일 이 곳에서 태어난 카프카는 자신의 짧은 생애의 대부분을 이 곳에서 보냈다고 한다.



건물의 입구에 '프란츠 카프카'라는 빨간 낱말이 붙어 있다. 내부에는 카프카 작품의 원본들과 관련 사진이 전시되어 있는 전시실과 카프카와 관련된 기념품을 파는 작은 상점이 있는데 이 곳까지 둘러볼만큼 발의 상태가 좋은게 아니라서 그냥 통과하기로 했다. 하루에 한 도시를 둘러 본다는 건 정말 무리한 일정인 것 같다.

'혼자 여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꿈꾸는 좀 더 여유로운 여행은 언제쯤이나 가능할까.'





2007.07.30

## Ranee in Praha

-구시가 광장-

일년 전, 이 곳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몇시간 동안이나 머물렀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지금 내 눈에 들어오는 광장의 모습은 일년 전과 많이 다른 모습이다.

'가는 곳마다 왜 이렇게 썰렁한 느낌일까?'

'프라하 성의 계단길도 그렇고 카를교도 그렇고 이 곳까지 말이다.'

아무래도 날씨 탓만은 아닌 것 같다.

거리의 약사도 잘 보이지 않고 기념품이나 예쁜 소품을 파는 노점상도 전에보다 많이 보이지 않고 보수공사 중인 곳은 또 왜 이렇게 많은지...

이 곳도 예외는 아니어서 안 후스 동상도 보수 중이고 틴 성모 성당도 보수 공사중이다.

프라하에 다시 와 보물찾기 하듯 작년에 못봤던 것들을 찾아 보는 재미는 정말 좋았지만 지난 일년간 내 머리 속에 아름답게만 간직되어 있던 프라하에 대한 기억에 흠집이 난 것 같아 속상해지는 마음을 어쩔 수 없다.



### 구시가 광장

왼쪽부터 보수 중인 얀 후스 동상과 동상 뒤에 골스 킨스키 궁전, 돌종의 집, 틴 성모 성당



▲  
구시청사와 천문시계



▲  
성 미콜라세 교회



▲  
가운데 진화색벽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집은 카프카가 살았던 집이고 오른쪽에는 천문 시계가 있다.





▲  
천문 시계



전통빵 마르뎀을 만들어 판다.  
먹어 보고 싶었지만 줄이 너무 길어서 포기했는데 새삼 되게 먹어 보고 싶어진다.

2007.07.30

\* Rane in Praha

화악타펠 가기 위해 **첼레트나** 거리로 향하는데 **틴 성모 성당** 앞 건물 앞에 놓여 있는 포스터 입간판이 눈에 들어 온다.

이 건물에서 달리와 **무하**의 그림을 전시하나 보다. 얼마나 다행인지...

작년에 무하 미술관 앞을 지나면서도 그의 그림을 보지 못했던 것이 후회가 돼 이번 프라하 여행에선 꼭 **무하 미술관**을 찾아 보리라 결심했지만 사실은 다리가 너무 아파서 결심이 흔들리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이다.

'하~ 미술관까지 가지 않아도 무하의 그림을 볼 수 있게 됐네.'

'고마워요.'

**달리**와 **무하**의 그림을 다 볼까 **무하**의 그림만 볼까 잠시 고민하다 다리도 너무 아프고 아직도 가야할 곳이 몇 군데 더 남아 있기에 **무하**의 그림만 보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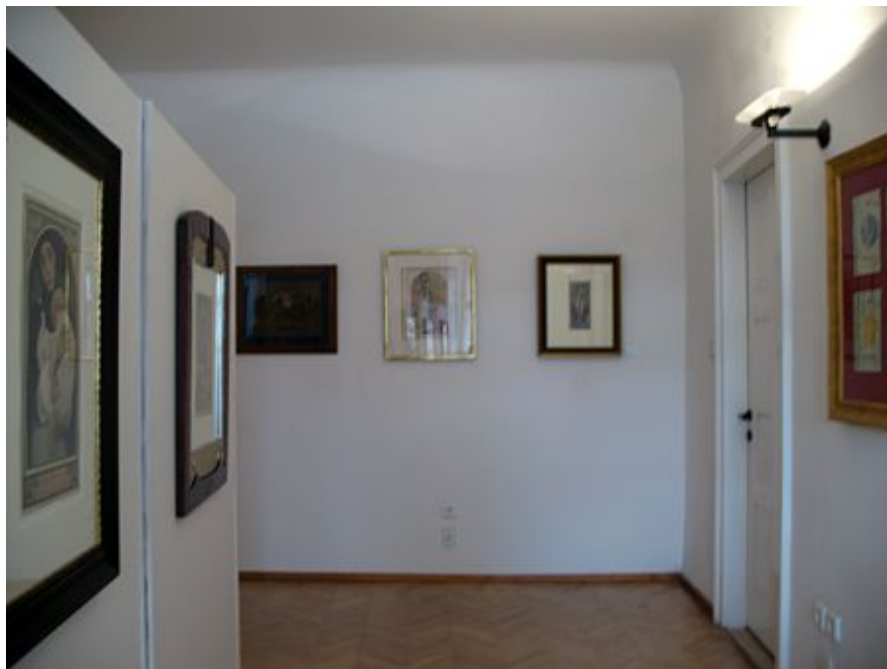




▲  
전시장 입구



▲  
전시장 입구에 놓여 있는 입간판



▲  
전시장 내부



전시된 무하의 그림 중 유일하게 찍은 사진  
 관람객 중엔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 곳은 어쩐지 몰라도  
 무하 미술관에선 촬영이 금지 되어 있는 걸 알기에 혹시 몰라 사진을 찍지 못했다.

무하의 그림을 본 후 **첼레트나** 거리를 걸어 **화악탑**으로 향했다.

**화악탑**을 보기 위함은 아니고 **시민회관**을 보기 위해서다.

(지난 여행에서 시민회관을 보지 않고 화악탑 앞에서 발걸음을 되돌린 것을 많이 후회했으므로...)



**화악탑**을 통과하면 보이는 건물들

윗 사진 속 건물은 은행인데 아랫 사진 속 건물은 뭐하는 곳인지 잘 모르겠다.

짐작에 공연장 같기도 하고...





### 화약탑

화약고로도 사용되었던 중세의 탑문이다.



### 화약탑 옆 시민회관

외관은 네오바로크 양식, 내부는 화려한 아르누보 양식의 건물에  
콘서트 홀과 전시회장, 레스토랑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입구 외벽에 붙은 모자이크화가 **시민회관**의 심벌이다.



**시민회관**이 있는 이 길을 따라 내려가면 **나메스티 레푸블리키** 역이 나온다.





#### 나메스티 레푸블리키 역

다리가 아파 **바츨라프 광장**까지 걸어갈 자신이 없어 이 곳에서 지하철을 타기로 했다.  
지하철을 타고 무제움 역까지 가서 **국립 박물관**과 **바츨라프 광장**을 보기만 해야겠다.  
어느새 해가 많이 기운 것 같다.



유럽에선 '미성년자'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건지 여성들의 나체 사진을 어디서든 볼 수 있다.  
잡지 표지에서는 물론 버스 정류장 같은 곳의 광고판 등등에서...





▲  
나메스티 레푸블리키 역

2007.07.30

\* Rane in Praha

-스메타나 박물관-

일행들이 인형극을 보고 여기까지 오려면 적어도 2시간은 족히 걸릴테지만 발바닥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아 더이상 아무 데도 가고 싶지가 않다.

카를교 앞 성 프란시스코 교회 계단에 앉아 우두커니 일행들을 기다리려니 점점 쌀쌀해지는 밤공기에 몸이 부르르 떨리고 웬지 처량 맞은 생각이 든다. 그 때 카를교 근처에 있는 스메타나 박물관이 문득 떠오른다.

'좀 쉬었으니 거기까지 걷는 건 할 수 있을거야.'

'박물관 안에는 들어갈 수 없겠지만 그냥 걸모습이라도 보고 오자.'



▲  
박물관 앞의 스메타나 동상



▲  
노란색과 검은색을 곁여 새기는 스크라피토 기법으로 장식한

파사드가 아름다워 블타바 강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건물이다.  
스메타나 박물관에는 그가 연주하던 그랜드 피아노와 지휘봉 등이  
전시되어 있고 스메타나의 작품관 업적이 소개되어 있다고 한다.



스메타나 박물관 앞에서 바라보는 해질녘 블타바 강과 프라하 성





**프**라하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인 **프라하 성**의 夜景을 보려는 사람들로  
**카를교**는 아직도 북적이고 있다.





▲  
노을 지는 프라하의 하늘  
블타바 강에도 밤이 찾아들고 있다.





카를교에도 가로등이 하나 둘 켜지고



프라하 성도 빛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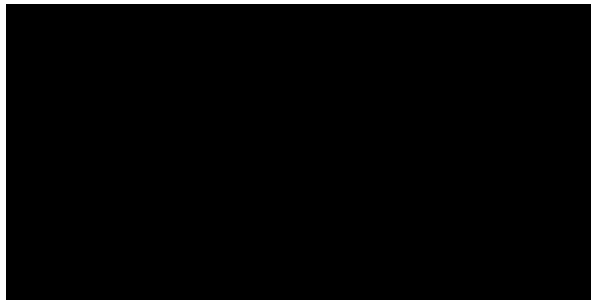




프라하 성의 야경을 보고자 모여드는 사람들은 발걸음을 재촉한다.



일행을 기다리며 앉아 있는데 음악 소리가 들린다.



성 프란시스 교회 앞에서 들려오는 연주 소리다.  
저녁에 교회에서 음악회가 있음을 알리기 위한 연주인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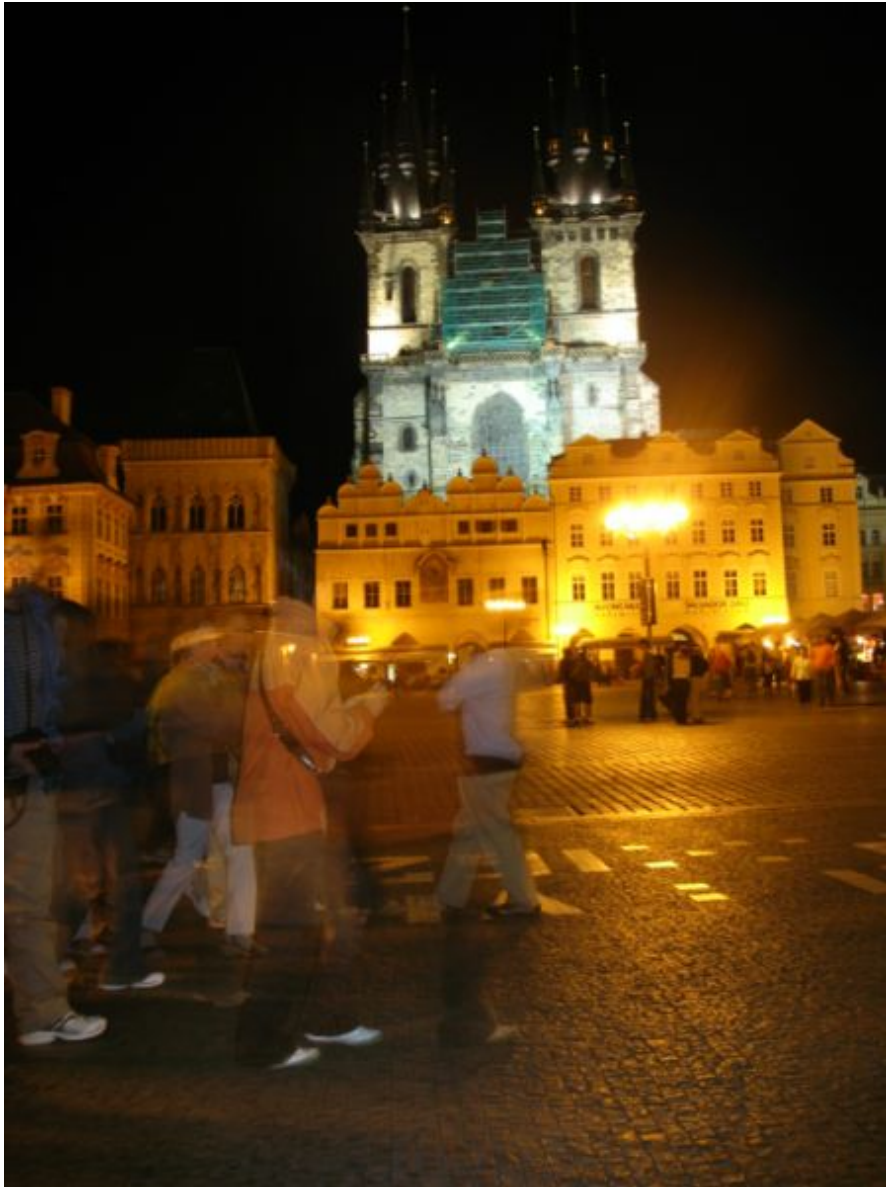




카를교에서 바라본 프라하 성의 야경  
어느덧 해가 완전히 지고 블타바 강은 온통 검은색이 되어버렸다..



프라하 성의 야경을 한동안 구경하고 ...



일행들을 만나 구시가 광장으로  
밤에 보는 틴 성모 성당도 멋지다.  
보수 공사 중인 모습이 아니었다면 더 좋았을텐데...



중세의 거리 모습이 남아 있는 프라하는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등록된 역사 지구를 중심으로 고딕이나 르네상스 양식의 건축물들이 즐비하고 그 밖에 바로크, 로코코, 아르누보 양식의 건축물들도 볼 수 있어 건축물 하나만 해도 볼거리가 풍부하다.

#### 고딕양식 건축물

하늘을 찌를 듯한 뾰족한 첨탑으로 장식된 건물이 특징으로  
성 비투스 성당, 카를교 구시가 교탑, 화약탑 등이 대표적 건축물이다.



- 1: 성 비투스 성당
- 2: 카를교 구시가 교탑
- 3: 화약탑

## 르네상스양식 건축물

보헤미아의 르네상스 양식은 정면의 박공 지붕(八자 모양의 지붕)에 흠을 넣어 장식하고 ,  
벽은 스크라피토(부조나 속임수 그림인 트롱프뢰유에 사용됨)기법을 가한 것.  
슈베르첸베르크 궁전이나 구시가 시청사 주변의 일부 주택 등이 있다.



- 1: 벨베데르 궁전의 왕궁 정원 한 쪽 끝에 있는 건물
- 2: 구시가 구 시청사 옆 주택 (카프카가 한 때 살았던 집이라고 함)
- 3: 슈바르첸 베르크 궁전

## 바로크양식 건축물

## 아르누보 양식 건축물



각 양식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중후한 양식.  
말라스트라나의 **성 미쿨라세 교회**는 장엄하고  
화려한 바로크 건축의 대표작이다.

19세기말 유럽에서는 아르누보(파리)와 유겐트슈틸  
(독일) 제체시온(빈) 등의 건축 운동이 고조되었다.  
프라하는 처음에 파리의 영향을 받았으나 나중에는  
독일과 빈으로 옮겨 갔다.  
대표적 건축물로 **시민회관**이 있다.



#### 로코코양식 건축물

로코코 양식은 바로크 양식의 양감 가득한 장식에 비해 경쾌하고 섬세한 장식이 특징.  
대표적 건축물로는 구시가 광장의 **골스 킨스키 궁전**이 있다.



\*\*\*\*\*

이런 대표적인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프라하**에서는 색다른 건축물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했다. 알고보면 유럽의 주변 다른 나라들과 비슷 비슷한 모습의 건축물일지도 모르겠지만.....





무어인 조각상이 눈에 띄는 네루도바의 루마니아 대사관을 기억하는지....

하지만 그러한 건축물은 루마니아 대사관만 있는게 아니다.

유명한 건축물은 아닌지 몰라도 프라하엔 이렇게 유사한 건축물들이 곳곳에 있다.

왜 굳이 힘들어 보이게 인물상들이 처마(?)를 떠받치고 있게 건물을 만들었는지...

'아~ 궁금해. 궁금해.'

'무슨 뜻이 있는거야~'



외벽을 장식한 조각상들이 있는 루돌피눔







루돌피눔처럼 외벽을 장식한 조각상들이 있는 건축물들



외벽에 부조 장식이 있는 건축물



▲  
현대적 분위기의 벽 장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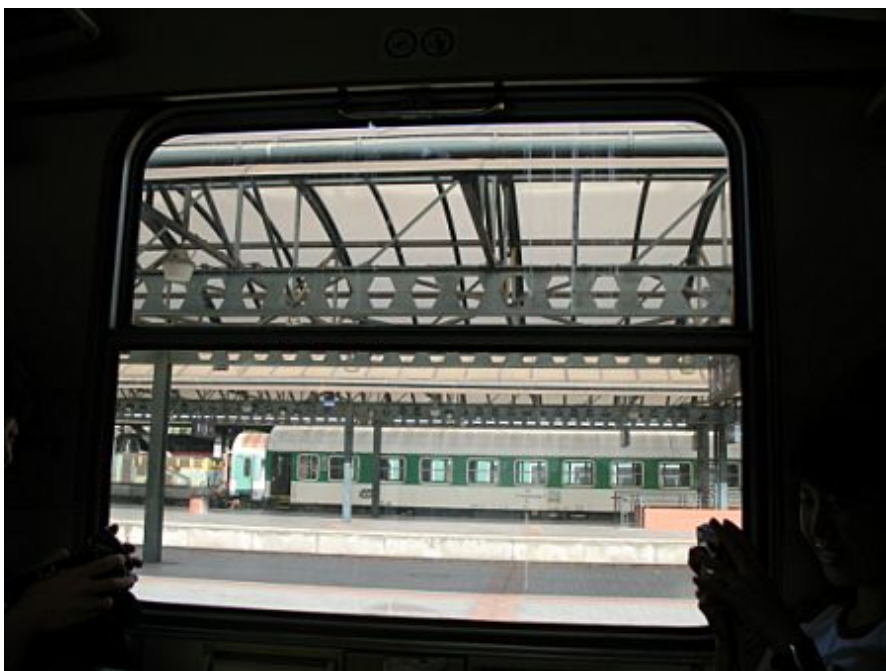


▲문과 창문 장식이 아름다운 건축물



프라하를 떠난다.

어쩌면 영원한 작별이 될지도 모르겠다.  
먼 훗날 추억 속의 장소로 다시 찾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 때는 정말 여유롭게 즐겨주리라.





작년에 버스를 이용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엔 기차를 이용해 체스키 크룸로프로 간다.



차창 밖으로 바라보는 그림 같은 풍경들에 어쩌면 그렇게도 나는 매번 감동하게 되는지....



내가 좋아하는 뭉게구름이 마을에도



들판에도 한가득이다.  
구름만 보면 마음은 또 왜 이렇게 들뜨는 건지...





체스키 부데요비체역이다.

나는 이제 이 곳에서 기차를 갈아 타고 체스키 크룸로프 역으로 향할 것이다.



또 다시 펼쳐지는 그림 같은 풍경들



체스키 크롬로프 역에 도착했다.  
하지만 아직도 완전한 도착은 아니다.  
이 곳에서 버스를 타야 마을로 갈 수 있으니까.



버스에서 내려 조금 걸으니 부데요비체 문이 보인다.  
두근거린다. 작년에 느꼈던 그 감동을 또 느낄 수 있을까



2007.07.31

\* Rane in Cesky Krumlov



버스에서 내려 구시가로 들어 가기 위해 부데요비체문으로 향하는 중.



부데요비체 문을 들어서면 성에서 일하던 하인들의 집이 모여있는 란트라 거리가 나온다.



길을 따라 5분 정도 더 가면 체스키 크룸로프 성이 나오겠지만  
일단 호텔에 짐을 풀어야 하므로 호텔로...  
(사진은 호텔 주변의 모습. 정작 호텔 사진은 왜 안찍었는지...헛!)



호텔에서 체크인을 마치고 컵라면으로 대강 점심을 때운 후 다시 나와 성으로 향했다.  
앞의 붉은 문을 지나면 오른쪽에 성문이 있다.



유럽의 길들이 돌길임은 익히 알고 있지만  
이 곳의 돌길은 약간 울퉁불퉁해서 편한 신발이 아니면 발이 아플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 문을 지나 언덕을 올라가면

성의 탑과 체스키 크룸로프 성 그리고 한참을 더 걸어 올라가면 성의 정원이 있다.

하지만 나는 작년에 올해도 성의 정원은 다녀오지 못했다.

작년엔 몰라서, 이번엔 몸이 너무 안좋아서 올라가다 포기하고 중간에 내려와 버렸는데

결국 그것이 체스키 크룸로프에서의 가장 아쉽고 후회되는 일이 되어 버렸다.

2007.07.31

\* Rane in Cesky Krumlov

- 체스키 크룸로프 성 -

체스키 크룸로프 성,  
일년 전 버스 시간에 쫓기어  
성과 성의 정원은 못 가보고 간신히 탑(호라데크 타워)에만 올라갈 수 있었던 곳이다.  
혹시나 이번에도 시간에 쫓기어 제대로 못보게 될까봐  
탑에 올라가는 것은 뒤로 미루고 부지런히 성으로 향했지만  
망토 다리를 건너 성의 정원을 향해 언덕을 오르는 도중 몸 상태가 너무 안좋아져서  
결국은 되돌아서고 말았다.  
여행의 추억을 떠올리게 될 때마다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을 곳.  
아마도 체스키 크룸로프 성은 나에게 그런 곳으로 기억 될 곳이다.  
'그나마 작년에 못가봤던 망토 다리라도 가봤으니 그것으로라도 위안을 삼아야지 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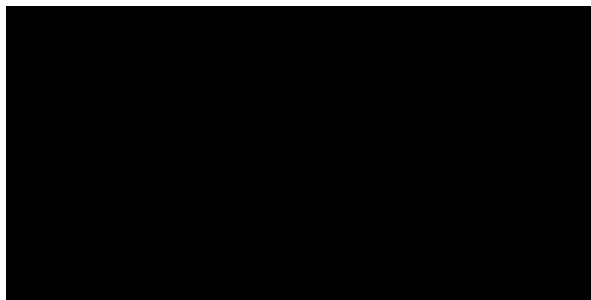


▲  
성의 탑  
(흐라데크 타워)





내부 관람을 하지 못해 아쉬움으로 남는 체스키 크룸로프 성  
(성 내부는 가이드 투어만 가능하며 한 시간씩 소요된다.)





▲  
망토 다리





망토 다리 위 난간에 서서



망토 다리에서 내려다 본 구시가지와 블타바 강의 모습









망토 다리를 건너 성의 정원을 향해 걸어 가는 중







성의 정원으로 가는 언덕을 올라 가는 도중에.  
(사진만 보면 하나도 안아파 보이는 걸...)



이 곳에서 내려다 보는 구시가지 모습  
정말 멋진 모습이다.





내려오면서 다시 성을 통과하고...



또 문을 통과하고...





저 문을 통과해 다시 마을로...

2007.07.31

\* Rane in Cesky Krumlov



체스키 크룸로프 성에서 마을을 내려다 본다.



동화책 속에서 톱 튀어나온 듯한 마을의 모습





마치 요정들이 살고 있을 것만 같다.

성에서 내려와 란트란 거리를 걸었다.

대못으로 박은 발 형상이 있는 문이 눈에 들어 온다.

언뜻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떠올리며 안을 빼꼼히 들여다 보았다.

문에는 갤러리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도무지 어떤 내용의 전시를 하는 곳인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갤러리 안쪽을 기웃거리고 있는데 다시 나의 눈길을 잡아 끄는 것이 있다.

중세 복장을 한 젊은 남녀가 거리를 누비는 모습...

거리의 모습이 중세 모습 그대로여서인지 더욱 더 중세로의 시간 여행을 떠나온 듯한 느낌이다.

관광객들을 위한 이벤트 같은 것인줄 알았는데 잠시 지켜보니

아무래도 호객 행위인 것 같다.







성이 있는 라트란 거리와 강 건너 구시가를 연결하는 다리인 이발사의 다리는

라트란 1번지에 이발소가 자리한데서 다리 이름이 유래 했다고 하며

루돌프2세의 서자와 이발사의 딸의 비극적인 사랑의 전설이 깃든 곳이기도 하단다.

다리 위에는 19세기에 세워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와 다리의 수호성인 조각상이 세워져 있다.



이발사의 다리에 세워진 십자가와 이발사의 다리에서 보는 성의 탑



란트란 거리와 구시가를 연결하는 이발사의 다리



이발사의 다리에서 보는 블타바 강과 체스키 크룸로프 성





블타바 강변에는 강을 바라보며 식사를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이 늘어서 있다.



▲  
이발사의 다리를 건너 구시가로

2007.07.31

## Ranee in Cesky Krumlov

-블타바 강을 따라...-



▲



이발사의 다리를 건너 구시가로...



구시가에 들어서서 다시 오른쪽 블타강이 보이는 골목으로...





블타바 강변의 예쁘게 치장한 레스토랑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블타바 강에서 레포츠를 즐기는 사람들



망토다리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레스토랑을 기웃기웃...



실내보다는 강 위에서 식사를 하고 싶어 이 곳으로 선택했다.



배는 고프데 음식을 보니 또 속이 울렁거린다.  
 제대로 음식 섭취를 못하니 컨디션도 좋지 않고 여행이 즐거움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 같다.  
 '먹은 양보다 남긴 양이 훨씬 많네. 아~ 아까워.'





2007.07.31

\*Ranee in Cesky Krumlov

-거리를 걸으며-

저녁을 먹는 등 마는 등하고 다시 거리를 걷기 시작했다.  
프레스코화가 그려진 집이며 아기자기하게 장식된 집들이 동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모양 그대로다.  
유명한 건축물이 아니어도 보는 재미에 흠뻑 빠져 일본 일초도 지루한 줄 모르겠다.





저 의자에 한 번 앉아볼 용기가 있었으면 좋았으련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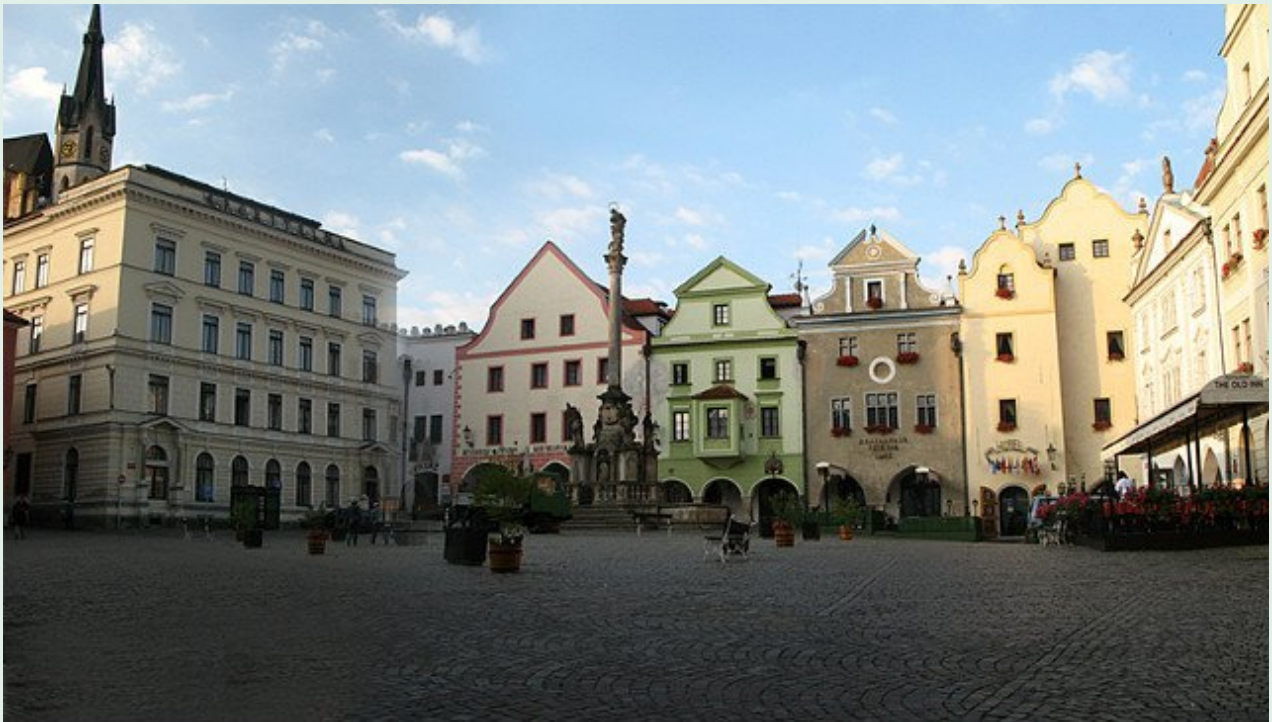




구가 시가 중앙에 위치한 **스보르노스티 광장**은

13세기부터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마을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

영화 **<아마데우스>**의 촬영지가 되기도 한 곳이란다.



스보르노스티 광장(중앙 광장)



### 그리스 성인의 조각 작품

1712~1716년 프라하의 조각가에 의해 페스트 퇴치 기념으로 세워졌다.



광장 주변을 둘러싼 아름다운 중세시대 건축물들은 현재 호텔, 기념품 상점, 레스토랑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체스키 크룸로프의 전망을 감상하고 싶다면...**

체스키 크룸로프 성의 호라데크 타워와 망토다리 이외에 이 곳도 있음을 잊지 말자.  
성 비투스 교회를 지나 루제 호텔 맞은편, 지역 박물관 옆에서 보는 체스키 크룸로프의 전망도 정말 멋있다.



-호라데크 타워를 배경으로-





아침이 밝았다.

프라하에 이어 체스키 크룸로프까지...

오늘은 체코에서의 일정을 끝내고 오스트리아로 넘어가는 날이다.

두 곳 다 두번째 오는 곳이라 설레임이나 감동은 덜 했지만

이제는 정말 다시 오지 못할 곳이라 생각하니 발길이 쉽게 떨어질 것 같지 않다.

출발 시각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 아침 산책을 하기로 했다.

인적 없는 고요한 거리를 홀로 걷자니 이 거리가 온통 나만의 것 같아서 기분이 정말 좋다.



호텔 주변의 기념품 상점



▲  
아침에 일하는 사람들



▲  
성문



▲  
이발사의 다리





▲  
블타바 강



▲  
블타바 강변의 레스토랑



▲  
스보르노스티 광장



▲  
창문에 널린 빨래들  
아침이슬에 젖지 않을런지...



▲  
너무나 조용한 골목길 풍경



▲  
부데요비체문을 나오면 조금전 보았던 구시가지와는 전혀 다른 신시가지의 모습이 펼쳐져 있다.  
이제 정말 안녕~



☞ '07 오스트리아로 이어집니다.

2007.08.01



체스키 크룸로프 기차역에 도착했다. 소박하고 작은 기차역의 느낌이 다시 봐도 정겹다.  
체스키 크룸로프도 두번 찾은 곳이니 이 기차역을 다시 볼 일은.....글쎄? 아마도 없지 않을까.



기차가 도착하고 다음 목적지인 팔츠부르크로 가기 위해 우리는 기차에 몸을 실었다.  
 하지만 팔츠부르크까지 한 번에 가는 기차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탄 기차는 체스키 부데요비체행 기차였다.  
 승객의 대부분이 할머니 할아버지여서 그런지 체스키 크룸로프의 기차역처럼 시골스런 정겨움이 느껴진다.



기차는 어느새 체스키 부데요비체에 도착하고 우리는 여기서 린프행 기차로 다시 갈아탔다.  
 기차의 차창 밖으로 눈을 땔 수 없는 아름다운 풍경들이 쉴새없이 스쳐 지나간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유럽의 들판은 어쩌면 이렇게 그림 같을 수 있는 걸까.





구름도 예술이고...



초록 들판과 대비되는 빨간 지붕의 집들도 그림 같다.



풍경에 취해 있다보니 어느새 린쯔역.  
이 곳에서 다시 기차를 갈아타고 찰츠부르크로 향한다.



저들에겐 그저 삶의 터전이고 일터일 뿐일지도 모르지만 나에겐 꿈이고 동화 같고 그림 같은 곳이다.



푸른 언덕, 흰구름...  
 동요의 노랫말이 떠오르는 풍경 속을 기차가 계속해서 달리고 있다.



나에겐 창밖으로 흘러가는 유럽의 시골 풍경이  
 봐도 봐도 질리지 않는 재미있는 영상물처럼 보이는데  
 옆에서는 눈을 감고 잠을 청하고 있다.



"저게 재미 없단 말이야??



우리의 목적지 팔츠부르크 기차역에 도착했다.  
딱 일년전에도 왔던 곳인데 이상하게도 왔던 곳 같지 않고 낯설기만 하다.  
왜 그럴까.

2007.08.01

**일**정표에 **할슈타트**에 간다는 계획이 정확히 표기되어 있지 않아 아무도 **할슈타트**에 간다는 걸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인솔하는 선생님께서 **할슈타트**에 가자 한다. 나는 이미 지난 여행에서 **할슈타트**도 다녀왔기 때문에 가도 그만 안가도 그만이었지만 다른 일행들은 모두 가보지 않은 상태라 결국 **할슈타트**엘 가보기로 했다.

'휴~ 그럴 것 같았으면 **린쯔**에서 **팔츠부르크**로 오지 말고 반대쪽으로 갔었으면 좋았을텐데...'

시간이 너무 늦은 상태라 팔츠부르크의 호텔에 짐을 풀고 할슈타트로 향하려던 계획을 수정하여 짐을 전부 들고 왔던 길을 되돌아 **할슈타트**로 가기로 했다.

도대체 몇시간이나 낭비하는 건지....

결과적으로 **할슈타트**는 두 시간 밖에 구경하지 못하고 **팔츠부르크**도 다음날 아침, 번갯불에 콩 귀 먹 듯 구경해야 했다는 것이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아트낭푸헤임까지 가기 위해 기차를 타고 왔던 길을 되돌아 가는 중



계속 가도 시간이 촉박한데 중간에 공사중인 구간이 있어서 공사 중인 구간만큼은 버스를 이용했다.  
시간은 더 걸렸지만 덕분에 작년에 못 타본 POST버스를 타보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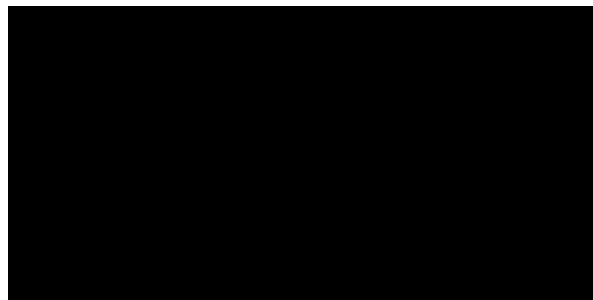
▲  
버스 창 밖으로 호수가 보인다.



▲  
다시 기차로 갈아타고 멋진 풍경 속을 달려



시골 간이역보다도 작은 할슈타트 역에 도착했다.



2007.08.01

\*Ranee in Hallstatt

-할슈타트 호수-

할슈타트 역에 내리면 다시 5분 정도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야 마을에 도착한다.

배를 타러 호수 쪽으로 내려 가는데 작년에 본 할슈타트와 느낌이 많이 다르다.

'날씨 때문인가??'

'작년엔 비가 와서인지 호수의 분위기가 더 낭만적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햇살이 너무 강하다.



저 아래 호수 쪽에 승객을 기다리는 배가 보인다.





호수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는 그녀들.  
작년엔 비가 와서 보지 못했던 풍경이다.





배 위의 승객들은 그녀들에게서 눈을 땔 줄 모르고.....



보석 가루를 뿌려놓은 듯한 호수가 아름답고 또 아름답다.



산과 호수의 어우러짐이 예술이다.



마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내 인생의 말년을 이런 곳에서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2007.08.01

## Ranee in Hallstatt

꼭 일년 전,

할슈타트에 첫발을 디뎠던 그 날,

봄의 알츠를 통해 눈에 익은 이 성당을 발견하곤 얼마나 가슴 벅차하고 설레여 했었는지....

일년이 지났지만 너무 아름다웠던 기억이기에

굳이 끄집어내려 하지 않아도 그 기억이, 그 감정이 자연스레 되살아 난다..



재하의 피아노 소리가 아직도 들리는 듯 한데,

재하는 어디에 있는 건지...





작년엔 문이 닫혀 있어 들어가보지 못했는데 이번엔 성당 안에까지 들어가봤다.  
 재하도 없고 피아노도 없었지만 재하의 온기만은 아직 남아있는 듯...  
 아~ 감회가 새롭다.









2007.08.01

\*Ranee in Hallstatt

다시 찾은 꽃무덤,

일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다름이 없다.

무덤이라 하기엔 너무나 예쁘게 꾸며져 있는 무덤들.

우리네 둥근 무덤을 보면 하얀 소복 입은 귀신이 함께 떠올라 그랬을까 늘 무섭게 느껴졌는데  
이렇게 예쁜 무덤이라면 죽음도 그리 무섭게 느껴지지 않을 것 같다.





▲  
산 비탈의 성당 하나



▲  
꽃무덤이 있는 성당이다.  
일년 전 할슈타트를 떠날 때 가장 마지막으로 봤던 꽃무덤...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의 꽃무덤...  
성당의 마당은 죽은 이들이 주인이다.







무덤들 뒤로 보이는 계단으로 올라갔더니  
기도를 하는 곳인지 자그마하면서도 경건한 느낌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  
기도실 같은 곳에서 내려오다 바라본 평화롭고 멋진 풍경  
뒤에는 산이 앞에는 넓은 호수가...  
정말 명당 자리가 아니던가..

2007.08.01

재하의 그 집 또한 여전한데

역시나 재하만 없다.









2007.08.01

## Ranee in Hallstatt

**할슈타트**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사진이라면 바로 이 풍경을 담은 사진이 아닐까.

어린 시절부터 늘 동경해오던 상상 속의 그 곳이 현실이 되어 나타난 곳.  
그래서 영상미를 추구하는 연출가 윤석호의 작품에도 등장했던 거겠지.



2006.08.08





2007.07.31





'봄의 왈츠' 중에서

겨울의 **할슈타트**는 얼마나 또 매력적일까.  
몇 년후쯤엔 겨울에 가볼 수 있었음 좋겠다.

유럽에선 흔하디 흔한게 광장이다.

이 곳도 예외는 아니어서 마을의 중앙엔 어김없이 광장이라는 것이 있긴 한데  
광장이라 하기엔 매우 협소해 보인다.

공간이 좁아 그런가, 일년 전에 보았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광장엔 사람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주변에 예쁜 집이 없었다면 조금은 쓸쓸해 보이는 광장, 할슈타트의 광장은 그런 광장이었다.







호숫가를 따라 길을 걸어 본다.

초록의 산과 푸른 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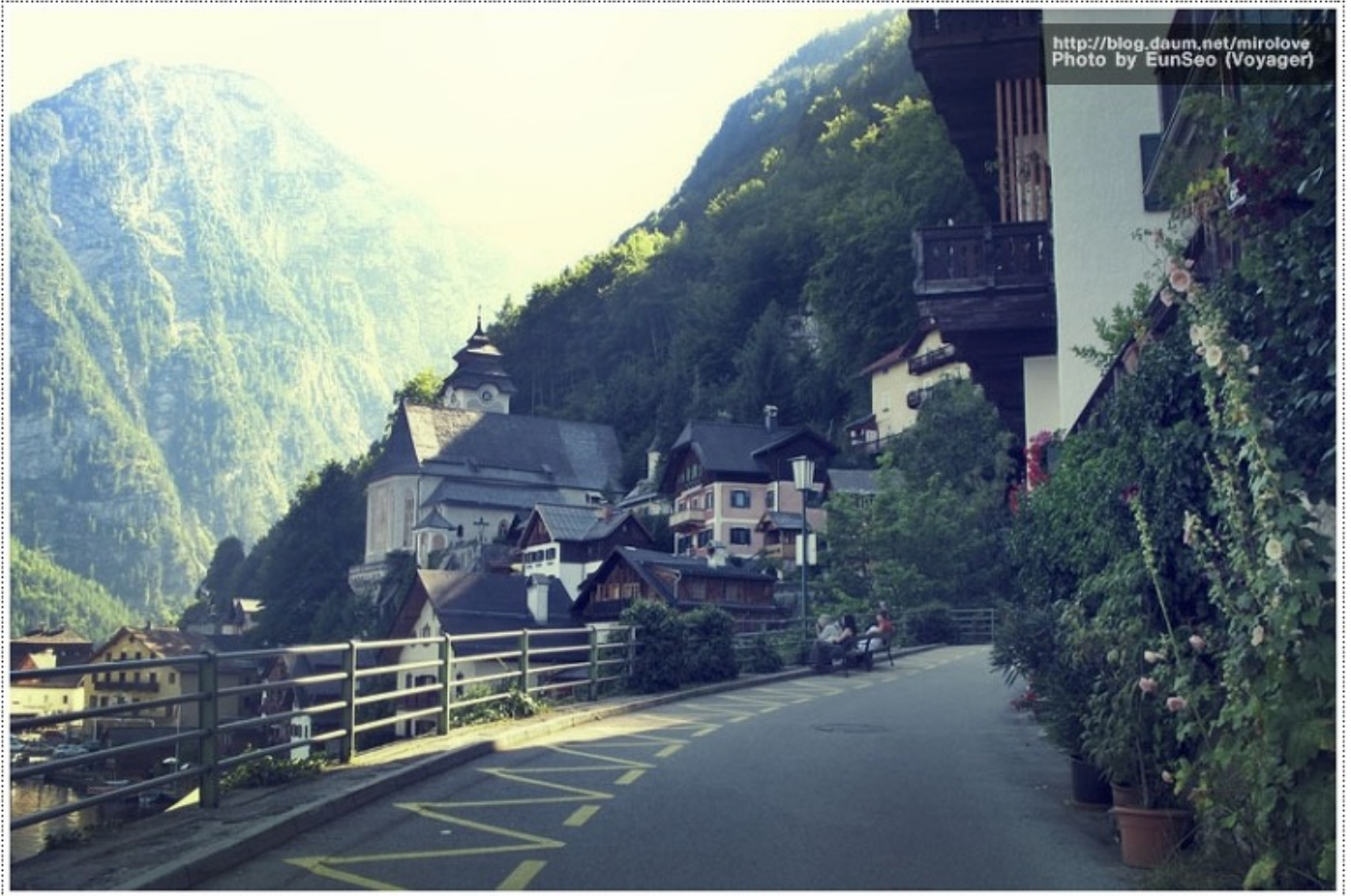
초록, 빨강, 노랑의 집들과 창가마다 잘 가꾸어진 탐스러운 꽃...

이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마치 천국의 길을 걷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한다.











<http://blog.daum.net/mirolove>  
Photo by EunSeo (Voyager)







-  
-  
-  
-  
-



.

온갖 예쁜 것들의 집합소인 기념품점을 구경하는 것은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재미 있다.

그러나 오늘은 온갖 예쁜 것들을 앞에 두고도 구경할 수 없는 처지...

쾰츠부르크까지 갔다가 되돌아 오는 일만 없었어도

시간에 이리 쫓기진 않았을텐데...







다시 나는 먼 길을 떠난다.  
길은 길로 이어져서 산과 들 강,  
저문 날이면 어느 곳엔들 닿지 않으랴.

-박남준 시에서-

"세|계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곳"

19세기의 세계적인 여행가였던 알렉산더 훔볼트가 Hallstattsee를 칭송한 말이란다.

정말 그렇지 아니한가...세계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곳





일년 전 네 곁을 떠나며 널 다시 볼 수 있게 되길 기도했지.

그렇지만 이렇게 빨리 널 다시 볼 수 있게 될 줄은 몰랐어.

널 다시 볼 수 있어 정말 반가웠다.

한 번 더 기도할게 널 다시 보게 해달라고...

나의 바람대로 널 다시 찾게 된다면 그 땐 아마 겨울일거야.

흰눈이 소복히 쌓인 겨울...

기...다...려... 줄...래?











2007년 8월 1일



<http://blog.daum.net/mr5864>

할슈타트역

일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안녕~'  
영원한 이별이 아니길 바래.



몇개의 기차역을 지났을까...기차역의 시계가 7시를 향해 가고 있다.

기차표를 검사해 주는 검표원이었지 아마???

시간이 흐르고 보니 그런 기억의 조각들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선 정확한 기억이 없지만 그래도 그의 친절함과 환한 미소는 잊혀지지 않는다.



<http://blog.daum.net/mr5864>

문득 떠오르는 노래가사 한구절..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백년 살고 싶어."



<http://blog.daum.net/mr5864>



### 그문덴역

생각 같아선 팔츠캄머구트의 모든 마을 돌아보고 싶지만... 아흑 ㅜㅜ



### 아트낭푸헤임역

오는 길엔 공사 구간이 없어서 이제 이 곳에서 팔츠부르크로 가는 열차만 갈아 타면 된다.  
휴~ 다행이다. 무거운 가방 들고 열차나 버스를 갈아타는 일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



<http://blog.daum.net/mr5864>

### OBB

빨간색 열차들은 사진빨이 잘 받아서인지 무의식 중에도 사진을 찍게 된다.



<http://blog.daum.net/mr5864>

노을이 지기 시작한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 하는 여행이라면 한결 낭만적일텐데...

잘츠부르크 중앙역에 도착했다.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는 잘츠부르크





중앙역에서 15분쯤 걸으니 호텔이다.  
구시가지에서 가까우면 야경이라도 구경할까 싶었는데 구시가까지는 꽤 걸어야 할 것 같다.  
밤이라 조금 무섭기도 하고 너무 피곤하다. 할 수 없다. 내일 조금 더 서둘러야지.

## Mercure Les bons moments



Im Grünen gelegen und doch mittendrin  
Das Hotel Mercure Salzburg City ist zu jeder Jahreszeit die richtige Adresse für Ihren privaten oder geschäftlichen Aufenthalt in der Mozartstadt. Für Feste und Seminare schaffen wir in unseren Bankett- und Tagungsräumen den gewünschten Rahmen. Parkplätze und Tiefgarage.

### *An oasis in the heart of the city*

*The Hotel Mercure Salzburg City is the perfect choice whatever the season regardless of whether you are traveling to the home of Mozart on business or for pleasure. Our reception and seminar rooms offer everything you could ask for plus ample open-air and underground parking.*

### Au vert et pourtant dans le centre ...

L'hôtel Mercure Salzburg City vous accueille dans la ville de Mozart à tous les moments de l'année, que ce soit pour vos séjours d'affaires ou privés. Parking et garage souterrain.

### ANFAHRT / ACCESS / ACCÈS

Westautobahn (A1), Ausfahrt Nord, Richtung Zentrum über Vogelweiderstraße.  
Die Altstadt ist zu Fuß in zehn Minuten zu erreichen.

*From the Westautobahn (A1) take the Nord exit in the direction of Zentrum via Vogelweiderstraße. The Old City is just a 10-minute walk away.*

Accès par l'autoroute A1, sortie nord, direction centre par la Vogelweiderstraße. La vieille ville est à dix minutes à pied.



### HOTEL MERCURE SALZBURG CITY

Bayerhamerstraße 14 a  
5020 Salzburg  
Telefon: (+43) (662) 88 14 38-0  
Fax: (+43) (662) 87 11 11-411  
E-Mail: h0984@accor.com

### MERCURE RESERVATIONS SERVICES

Austria 01 360 27 72 000  
France 0625 88 33 33 N° Indigo (€ 0.15 ttc/min)  
Germany 069 95 307 592  
Italy 199 140 858 (€ 0.15 ttc/min)  
United Kingdom 0870 609 0965  
Spain 902 46 47 47  
USA/Canada 1 800 MERCURE (Toll free)

GDS  
Sabre : 20162 - Apollo/Galileo : 19193 - Amadeus : SZGMER -  
Worldspan : MRSZQ - WorldRES : 0984

[www.mercure.com](http://www.mercure.com) [www.accorhotels.com](http://www.accorhotels.com)

SALZBURG CITY  
★ ★ ★ ★

**Mercure**  
Accor hotels



Mercure, so schön ist die Region.

*Mercure, for the best of the region.*

Mercure, la région est si belle.

**해**외 여행을 나가면 꼭 해보고 싶은 일 중의 하나가 각각의 여행지에서 **시장**에 가보는 일이다.

**단체** 여행을 나가면 특히나 해보기 어려운 일이기에 **자유여행**에선 꼭 **시장**을 찾아보려 노력한다.

하지만 시간적으로 늘 여유있는 여행을 하지 못하다 보니 그 일도 그리 쉽지만은 않다.

팔츠부르크에서의 주어진 시간 또한 전혀 여유가 없었기에 **시장**에 들려보겠단 생각은 해보지도 못했는데 어떤 일인지 **미라벨궁** 맞은편에 **시**  
**장**이 보인다.

'어라! 작년엔 **시장**이 없었는데.... '

'우리나라 5일장 같은 건가??'

아무래도 아침에만 열리는 **시장**이거나 주기적으로 열리는 **시장**인 것 같다.

덕분에 생각지도 못했던 **시장** **구경**을 보너스로 얻었다.





정확한 이름은 몰라도 눈에 익은 **꽃들의 모종이다.**  
 유럽에만 나가면 집집마다의 꽃 화분이나 예쁘게 가꾼 정원의 꽃들을 보며  
 나도 집에 돌아가면 꼭 꽃을 키워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되지만  
 집에만 돌아오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그러한 생각들을 다 잊어 버리게 된다.





▲  
과일이나 채소, 꽃 모두 그다지 특이해 보이는 것이 없다.

우리 나라와 비슷한 기후와 토양을 가지고 있나???

비슷한 게 많으니까 열대 과일 구경에 시간 가는 줄 몰랐던 태국에서의 시장 구경만큼은 재미있지 않은 것 같다.



▲  
다양한 피클들



버섯, 앵두...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과일들





▲  
 작년에 이 곳 찰츠부르크에서 사 먹은 **핫도그**의 맛을 두고 두고 잊지 못했었다.  
 하지만 이번 여행에선 여행내내 속이 좋지 않은 상태라  
 지금은 그야말로 보이는 모든게 그림의 떡이다.  
 먹을 것만 보면 속이 울렁울렁~



### ▲ 색색깔의 예쁜 꽃들

이제 막 장사를 시작했는데  
구경만 하고 사지 않으면 '재수없다' 할까봐  
가까이에서 구경도 못하고 멀리서만 봤더니 어떤 꽃들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과일들 또한 익숙한 과일들이다.





▲  
슬슬 사람들이 모이고 흥정을 하는 것 같은 모습도 보인다.



▲  
걸려 있는 옷만 보면 우리네 시장 같다.  
유럽 사람들이 이렇게 무늬 있고 화려한 옷을 입은 거는 보지 못한 것 같은데 .....  
'도대체 누가 입는 옷이지?'  
할머니들이 입는 옷...????

**미라벨** 정원은 이미 본 곳이고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도 크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 절약을 위해 그냥 지나쳐 갈까도 싶었지만 **구시가지**로 가는 길에 있어 아주 조금만 시간을 지체하면 될 것 같아 들려서 가기로 했다. 이른 아침이라 사람들의 발길이 뜸하다. 한적한 **정원**을 걷는 맛이 꽤 괜찮다.



처음 봤을 때나 지금이나 전혀 달라진 점 없이 잘 가꾸어진 정원의 모습





▲  
정원을 걷다가 일행을 만나 사진 한 두컷씩 찍어 주고 다시 헤어졌다.



▲  
호엔잘츠부르크성도 여전히하고...



▲  
미라벨 궁도 여전히하고...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저 문을 통과해 구시가로 발걸음을 재촉해야겠다.



**미**라벨 정원에서 나오면 길 건너 맞은편에 **모차르트의 집**이 보인다.

작년에는 돈 아낀다고 기웃거리다 되돌아 나오고 이번엔 시간 없다고 아예 길 건너편에서 보는 것으로 끝~  
알맹이는 죄다 빼놓고 겉껍데기만 보고 다니는 것 같다.  
'어쩔 수 없지 뭐.'



마카르트 광장의 모차르트의 집

1773년부터 1787년까지 모차르트 일가가 거주하였던 집이라고 한다.

모차르트는 1781년까지 이 곳에 거주하면서 많은 작품을 썼고 그의 부친은 이 집에서 사망하였다고 한다.



주변의 이름 모를 교회의 사진도 한 장 남긴다.

남들에게 다 있는 사진보다

'아~그래 여기야.'

하고 혼자 알아보고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사진들이 더 좋을 때가 많으니까...

(나중에 지도에서 찾아보니 **삼위일체 교회**인 것 같다.)



**신**시가에서 구시가로 가려면 작은 강을 건너야 하는데 그 강의 이름이 잘자흐 강이다.

잘자흐 강에는 여러개의 다리가 있는데 그 여러 개의 다리 중 가장 유명하다는 모차르트 다리와  
봄의 왈츠에서 재하와 은영이 재회한 다리를 찾아보는게 내가 이 곳에서 하기로 계획한 일.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재하와 은영이 재회한 다리는 여전히 찾을 수가 없다.

아쉽지만 모차르트 다리나 가봐야겠다.



▲  
모차르트 다리



▲  
마카르트 다리에서 본 뮐너 다리(아마도...)





▲  
뒤로 마카르트 다리가 보이고 잘자흐 강을 따라서 자전거 도로가 있다.  
상쾌한 아침 공기를 가르며 한적한 도로를 질주하는 기분 끝내 주겠다.





▲  
슈타트 다리가 보이고 강 건너편엔 구시가와 호엔 팔츠부르크 성채가 보인다.



▲  
슈타트 다리를 건넜다.

안쪽으로 계속 걸어들어 가면 게트라이데 가세가 나오지만  
모츠르트 다리를 보기 위해 잘자흐 강을 계속 따라 걷기로 했다.



뒤에 보이는 다리는 내가 건너온 슈타트 다리다.  
차들이 다니는 길은 한산한데 자전거 도로는 꽤 붐비고 있다.



▲  
모차르트 다리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





강 건너쪽, 슈타인 소로를 따라 늘어선 예쁜 집들



모차르트 다리에 거의 다 왔다.



차가 다니지 않는 보행자를 위한 다리, **모차르트 다리**  
 다리를 살펴보는데 정신이 팔려 달려오는 자전거와 살짝 접촉사고가 났다.  
 혹시라도 다리를 막고 서 있어서 사고가 났다고 화를 낼까봐  
 나는 연거푸 'I,m sorry. 'I,m sorry.'를 읊조렸고  
 그는 그대로 혹시나 내가 다쳤을까봐 'I,m sorry. 'I,m sorry.'를...  
 한동안 돌이는 어찌구저찌구... 굵신굵신...을 반복하느라 먼저 자리를 뜨지 못했다.



멀리 논탈러 다리가 보인다.

시간도 없고 다리도 아프고 저기까진 가보지 못하겠다.

모차르트 다리를 본 것으로 잘자흐 강의 다리 순례를 마치고 구시가지로 들어가 봐야겠다.







▲  
구시가지로 가기 위해 길을 건너야겠다.  
'호엔잘츠부르크 성은 어디서나 보이는군.'

중앙에는 바로크 양식의 레지덴츠 분수가, 남쪽에는 돔(대성당)이, 서쪽에는 대주교의 성관 레지덴츠가 있는 광장이다.

이른 아침이라 그런지 손님을 기다리는 관광 마차나 관광객들이 보이지 않아 내가 와 봤던 곳이 아닌 전혀 다른 곳에 와 있는 기분이다.



▲  
대성당과 분수





호화로운 대주교의 성관 레지덴츠  
잘츠부르크는 과연 주교의 도시다.

중앙에 모차르트의 동상이 있는 모차르트 광장,  
평소엔 여행객들로 붐비는 광장이지만 이른 아침이라 그런지 사람들의 발길이 뜸하다.  
당그러니 광장을 지키고 있는 모차르트의 동상이 외롭게 보인다.



▲  
1842년에 모차르트의 두 아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동상의 제막식이 거행되었다고 한다.

**작**년에 이 곳을 찾았을 땐 성당 앞에서 한 남자가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는데

너무 이른 아침이라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은 커녕 주변에서 사람들을 찾아보기조차 쉽지 않다.

성당에 들어 가려면 입장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매표소는 아직 열지 않았고 성당 안에는 몇 명의 남자가 일을 하는 모습이 보인다.

기웃거리다 조금 전에 만난 일행들과 함께 성당 안으로 들어 갔다.

후후~ 아무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다.

덕분에 공짜로 구경했다는 거.

공짜 좋아!!!



1655년에 완성된 거대한 성당

좌우 대칭을 이루는 2개의 탑은 높이가 80m이고 외부는 밝은 대리석으로 치장한 모습이다.





넓은 성당 안도 대리석과 회화로 덮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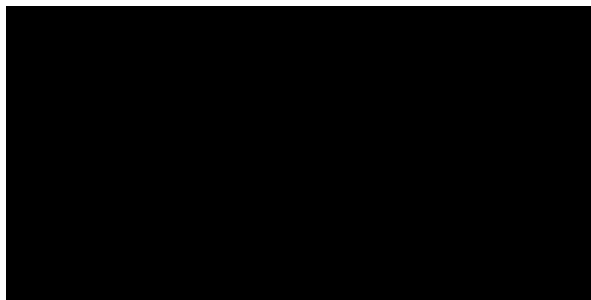


파이프 오르간은 유럽에서도 최대를 자랑하며  
모차르트도 이 성당에서 세례를 받았고 1779년부터 오르간 주자를 맡았었다고 한다.



중앙에 마리아 상이 있는 **돔 광장**.

1920년에 호프만스탈의 <예더만>이 이 곳에서 상연된 것이 잘츠부르크 음악제의 기원이 되었다고 한다.







하이든의 묘지가 있는 **성 페터 교회**.

작년에 이 곳을 놓치고 보지 못했던 것이 못내 아쉬웠는데 이번에 그 아쉬움을 날려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일행들과 만나기로 한 시간이 얼마 안남아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서둘러 둘러 보고

하이든이 잠들어 있다는 묘지로 향했는데...





### 성 페터 성당

1130년, 처음 건축할 당시에는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공사가 시작되었지만  
8세기에 걸쳐 증축되면서 바로크 양식으로 변모한 모습이라고 한다.



한 쪽엔 하이든 박물관, 또 한쪽엔 하이든 콘서트라고 써있다.  
잘츠부르크는 모차르트만의 도시인 줄 알았는데, 이 곳에서만큼은 하이든이 대세다. ㅎㅎ





용도는 모르겠으나 성 페터 교회에 속해 있는 건물 같다.





카타콤베(지하공동묘지)에 모차르트의 아내인 마리안네와 하이든의 묘지가 있단다.  
 그것도 모르고 위에 있는 묘지에서만 찾아보려고 했으니....쩍.  
 결국 하이든의 묘지를 보겠다면 나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





한참 묘지를 뒤지고 있는데 신부님이 지나 가신다.  
아무도 없는 묘지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동양 여자의 모습이 어떻게 보였을지...





성 페터 성당 입구.

시간에 쫓겨 나도 신부님의 뒤를 따라 묘지에서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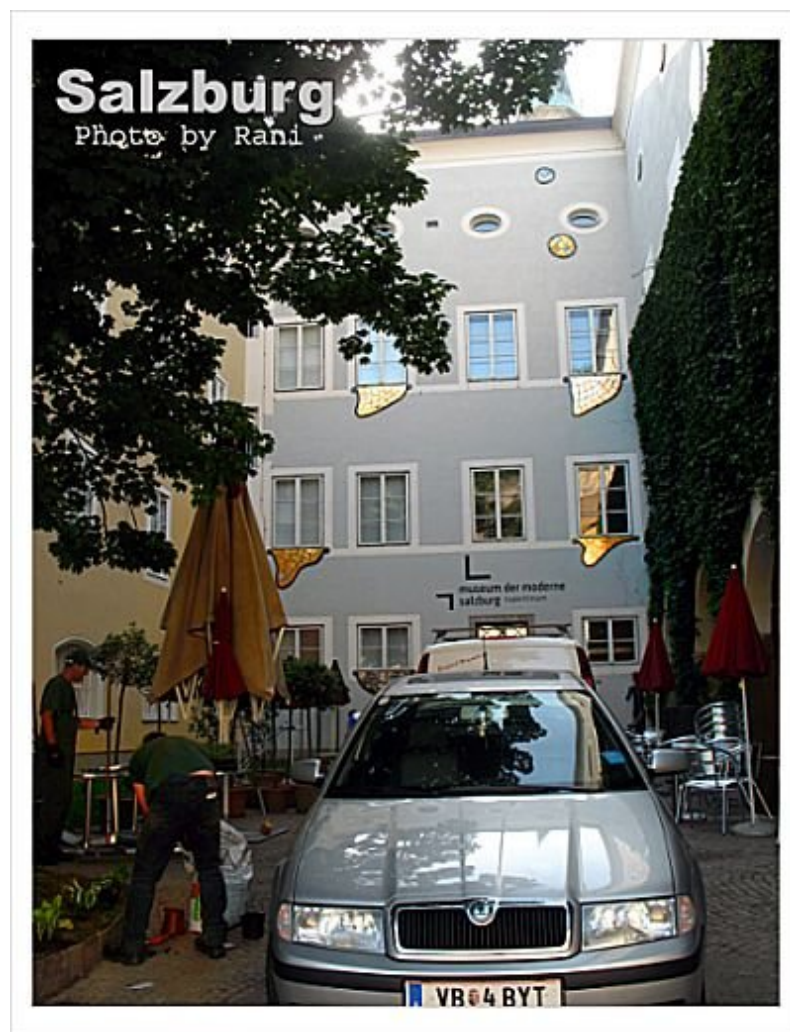
하이든의 묘지를 찾지 못했다는 사실을 서운해 하며...

누군가의 블로그에서 본 사진에 반해 꼭 찾아보기로 했던 **잘츠부르크 현대미술관**이다.

**훈데르트 바서**의 작품이라더니 역시 독특하다.

**비엔나**에 있는 독특한 그의 건축물들을 보면서도 행복했는데...

앞으로 있을 나의 여행에서 그의 작품들을 더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다.



museum der moderne salzburg rupertinum

쇼핑의 거리는 사람들로 넘쳐나야 제 맛인데 이른 시각이라 거리가 너무도 한산하다.

활기차기만 했던 이 거리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히 남아있는데...

낮선 이 거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게 무엇이랴.







작년에 입구까지 힘들게 걸어 올라 갔다가 매표소 앞에서 되돌아 나왔던 호엔잘츠부르크 성.

이렇게 전망 좋은 곳인 줄 알았다면 돈 좀 아끼자고 되돌아 나오는 일은 없었을텐데...

이번엔 일행들과 함께 성을 둘러 보기로 했다.

비엔나로 가는 기차 시간에 늦으면 안되므로 걸어 올라가지 않고 후니쿨라를 탔는데 후니쿨라는 비싼 요금에 비해 허무할만큼 금방 우리를 성 앞에 내려 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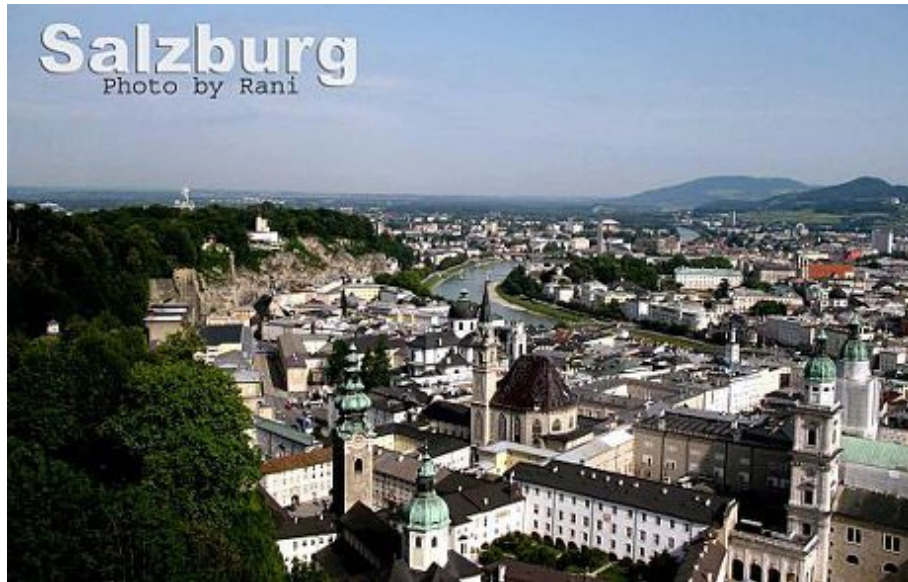
성에 오르기 위해 이동 중.

광장에는 작년에 없던 조형물이 하나 서있다.

무엇을 뜻하는 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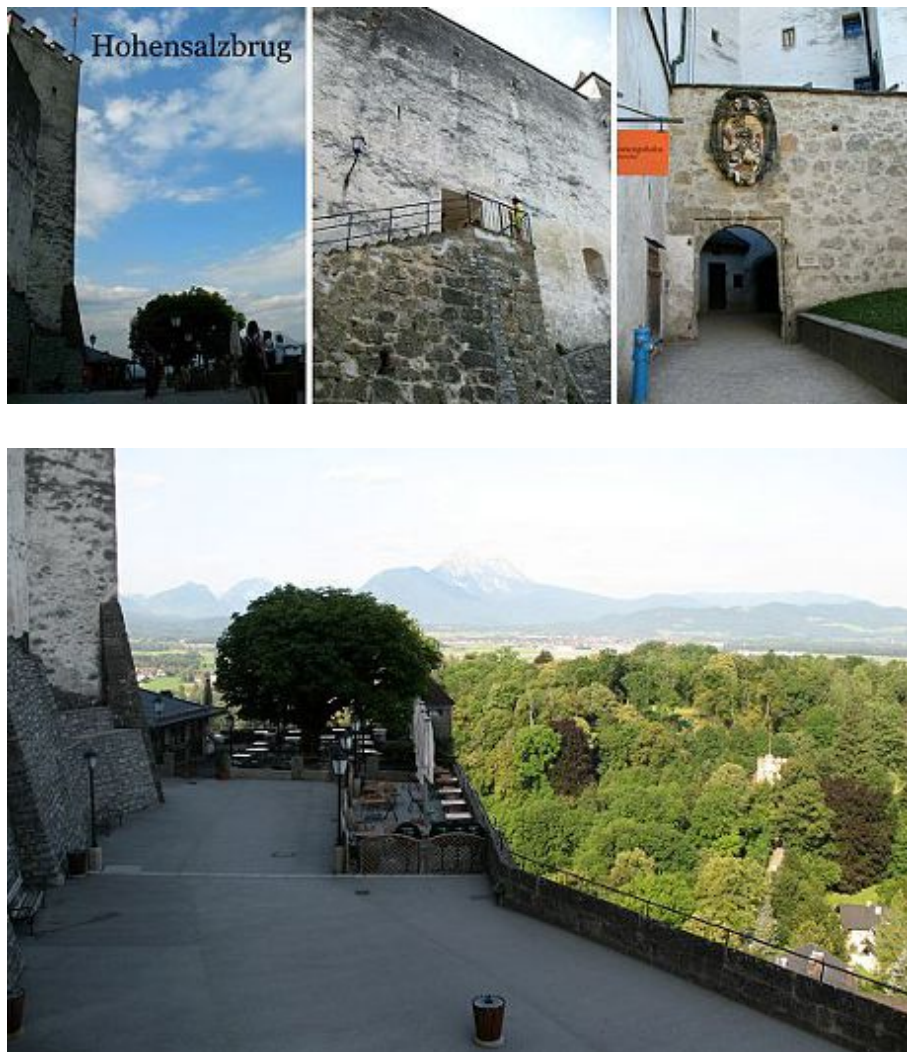


성에서 내려다 보는 전망이 정말 기막히다.





구 시가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호엔팔츠부르크 성,  
걸에서 보는 거보단 훨씬 복잡한 내부구조를 가진 호엔팔츠부르크 성을 둘러 본다.











1077년 게브하르트 대주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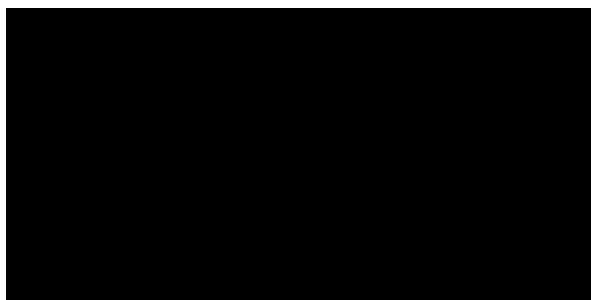
남독일 제후의 공격에 대비해 짓기 시작해 17세기에 완성했다는 호엔찰츠부르크 성은

중부 유럽에서 파손되지 않은 성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성이다.

성 안에는 의식 홀과 황금 홀, 1502년에 만든 고딕식 난로, 수동 파이프 오르간 등이 있는데

오르간은 하이든과 모차르트가 연주하기도 했다고 한다.

성 박물관에는 중세의 고문 기구, 무기, 공예품 등을 전시하며 가이드 투어로만 돌아볼 수 있고 사진 촬영은 금지되어 있다.







**호**엔팔츠부르크 성에 왜 마리오네트 인형들이 전시되어 있는 방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잘 만들어진 마리오네트 인형들을 보게 된 것은 생각지 못했던 즐거움이었다.











**팔츠부르크**에서의 4시간짜리 여행을 마치고 다음 여행지로 떠나기 위해 짐을 가지러 호텔로 돌아가는 중이다.

호엔팔츠부르크 성의 뒤 편도 가보고 싶었고 레오폴츠크론 성과 헬브룬 궁전도 다시 가보고 싶었는데 할슈타트에 다녀오느라고 팔츠부르크를 보는데 할애된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짧아져서 대부분의 계획 했던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팔츠부르크에 두번째 오는 나에게도 이렇게 짧은 시간이었는데 하물며 처음 이 곳에 온 대부분의 일행들이야 말해서 무엇하랴.

쓸쓸하기까지 했던 이른 아침의 거리와는 달리 돌아가는 길은 꽤 많아진 사람들로 인해 활기가 느껴지기 시작한다.

사람구경 또한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재미 아니던가. 기차 시간에 늦을까 종종거리면서도 눈은 부지런히 사람들을 따라 가고 있다.



레지덴츠 광장에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말들은 이제부터 또 고된 하루를 보내야겠지.





▲  
논베르크 수녀원의 수녀님일까???



▲  
교통량도 많아지고...







▲  
미라벨 정원도 북적인다.





▲  
귀여운 배통통 꼬마 아가씨...^^



▲  
텅텅 비어있던 미라벨 정원 옆 거리에도 사람, 사람, 사람들...



올해 오스트리아에서는 자전거 타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닐까???

작년 오스트리아 여행 기억에는 자전거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는게 없는데

이번 오스트리아 여행에선 할슈타트에서도 그렇고 이 곳 팔츠부르크에서도 그렇고 자전거를 정말 많이 보게 된다.





▲  
"할아버지 장 봐 가세요?"



성에서 너무 늦게 내려온 것인지, 걸음걸이가 너무 늦은 것인지, 아무래도 기차를 놓칠 것 같아 기차가 연착하기를 바라며 뛰고 또 뛰었다.  
발이 너무 아파 눈물이 날 것 같다.  
왜 여행 오기 전에 미리 미리 걷기 운동을 해놓지 않은 것일까... 또 다시 밀려오는 후회와 한숨....  
다행히 기차는 놓치지 않았다.



"덕분에 하룻밤 잘 보냈어."  
"이제 이 곳 **잘츠부르크**에 다시 올 일은 없겠지?"



빈의 서역에 가까와지고 있는 듯 하다.



서역에 도착했다. 벌써 두시다.

호텔에 가서 짐 풀고 점심을 대강이라도 먹고 다시 나오면 도대체 몇 시간이나 볼 수 있으려나.

빈도 두번째지만 아직도 보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렇다고 이 곳을 더 보겠다고 내일 브라티슬라바에 안 갈수도 없고...

'아흑~ 나두 여유있는 여행이 하고 싶단 말이야. '



▲  
일행들의 뒷모습



▲  
서역(Westbahnhof)에서 나와 지하철(U-Bahn)역 앞에서 52번 트램을 기다린다.





52번트램을 타고 호텔로...  
가는 중에 쇤부른 궁전 근처를 지난다.



▲  
호텔에 도착했다.

2007.08.02

## Ranee in Vienna

-오타크링-



호텔에 짐을 풀고 시내를 돌아보기 위해 다시 트램을 타고 서역으로 나와서 U-Bahn 3호선을 타러 가는 중이다.





내가 가고자 했던 역은 원래 링쪽 방향인 **폴크스씨어터** 역이었다.

하지만 지하철 역의 노선도에서 반대쪽 방향 종점인 **Ottakring**역을 봐버린 나는

**Ottakring** 역을 외면하고 **폴크스씨어터** 역으로 갈 수가 없다.

'빈이 사랑한 천재들' 이란 책을 통해 **오타크링역**이 **오토바그너**의 작품이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비엔나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이 **건축**을 테마로 하는 여행이었기에 아무리 시간이 부족해도 가보고 싶은 욕심이 솟구친다.

결국 나는 **오타크링** 방향의 U-Bahn 3호선을 타 버리고 말았다.



다섯 정거장을 가서 종점인 **오타크링역**에 내렸으나 아무리 봐도 전혀 특이한 점을 찾을 수가 없다.  
표검사를 하는 경찰들에게 검사를 당하고 밖으로 나왔으나...



건축물의 외부에서도 마찬가지로 특이한 점을 찾을 수가 없었다.  
시간도 없고 봐야할 것 투성인데 초반부터 진을 빼면 안될 것 같아 더이상 찾아보는 것을 포기하고 반대편 쪽으로 가서 다시 U-Bahn을 탔다.  
시간을 낭비한 것 같아 약간 속상한 맘이 들려고도 했지만 와보지 않았으면 두고두고 미련이 남았을 수도 있었으니 후회는 없다.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책을 통해 확인하니 바로 이런 모습이다.

내가 봤던 곳은 반대쪽이었거나 아니면,

국철과 3호선이 만나는 역이니까 3호선이 아닌 국철에 해당하는 역 건물이 따로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에이! 거기까지 가서 못보고 오다니..."





종점에서 탔더니 U-Bahn 안이 텅텅 비어 있다. 다른 칸에는 한 두명 탄 것 같기도 하지만...  
왔다갔다하느라 30분이상을 소비했으니 U-Bahn에서 내리면 더 부지런히 걸어야 할 것 같다.

2007.08.02

## Ranee in Vienna

-국회의사당-



오타크링에만 다녀오지 않았어도 세 정거장만에 도착할 이 곳이었는데 열세정거장만에 폴크스씨어터역

에 도착했다. 폴크스 극장을 보기 위해서다.

지도상으로 볼 땐 찾기 쉬울 것 같았는데 출구를 잘못 선택해 나왔는지 근처에 폴크스 극장은 보이지 않고 대신 눈에 익은 건축물이 보인다. 자연사 박물관이다. 어쩌면 미술사 박물관이었을지도...???

이번엔 미술사 박물관에서 브뤼겔의 그림을 꼭 보고 싶었는데 턱없이 부족한 시간 때문에 브뤼겔이나, 클림트나, 훈데르트바서나 하는 갈림길에서 일단 브뤼겔을 지을 수 밖에 없었다.





방향감을 상실하고 되는데로 건다보니 더 눈에 익은 건축물인 **국회의사당**이 보인다. 한 눈에 보기에 그리스 신전을 떠올리게 하는 그리스풍의 건축물이다. 알고보니 **국회의사당**을 건설한 사람이 아테네에서 성장한 사람이라고 한다. 8개의 둥근 기둥이 늘어선 입구 위에는 **그리스.로마 시대의 학자와 정치가들의**



모습이, 지붕 위에는 그리스의 전차가 조각되어 있고 정면에는 지혜의 여신인 아테나의 분수가 있다.



링 주변과 링 안쪽은 작년에 본 곳이기에 이번엔 링 주변은 생략하고 **훈데르트바서**의 건축물을 따라 돌아 보리라 계획을 세웠었는데 **국회의사당**을 보고나니 여기까지 온 거 대충대충이라고 구경해보자고 또 마음이 바뀐다.

'다음 정거장엔 **시청사**와 **부르크 극장**이 있었지!!!'

걸어서 갈 수 있을만큼 아주 짧은 거리였지만 시간절약을 위해 또 트램을 탄다. 1일권이 있어 든든하다.

2007년 8월 2일

## Ranee in Vienna

-시청사 & 부르크 극장-

국회의사당에서 트램을 타고 한 정거장 가서 내린 곳은 시청사와 부르크 극장 이 마주보고 있는 곳이었다. 일년 전 이 곳 시청앞 광장의 노천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음식을 눈 앞에 두고도 돈을 아끼느라 군침만 흘려야 했던 일이 떠오른다. 지금은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 건지 불행이라고 해야 하는 건지, 속이 좋지 않은 까닭에 그 무엇도 맛있어 보이는 음식이 없다.



98m의 탑이 솟아 있는 네오 고딕 양식의 **시청사는**  
 구시가의 호어마르크트 근처의 구시청사를 대신하여 1883년에 완성한 새로운 시청사로  
 네오고딕 건축의 명수 **프리드리히 폰 슈미트**의 걸작이라고 하며  
 여름에는 안뜰에서 음악회가 열리고 겨울에는 크리스마스 4주 전부터 시장이 선다고 한다.





#### 시청사 앞 광장

사시사철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훌륭한 휴식처가 되 주는 곳으로  
 여름철에는 세계 각지의 음식과 음료를 판매하는 노천 레스토랑이 들어서며  
 겨울철에는 스케이트장으로 개장된다고 한다.



시청 앞 광장에서 바라본 **부르크 극장 (궁정 극장)**  
**부르크 극장** 계단실의 천장화는 **클림트**가 그린 것으로  
**클림트**는 이 그림을 통해 이름을 알리기 시작해 그의 성공시대를 열게 되었다고 한다.  
그의 나이 스물 넷이었다.



### 부르크 극장

오로지 연극만을 위해 지어진 **부르크 극장**은  
극장 내에 냉방 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더위가 심한 7~8월에는 공연이 없고  
공연이 없는 낮 시간을 이용해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한다.





부르크 극장에서 가던 방향으로 조금 더 가다보면 카페가 하나 보인다.

란트만 카페이다.

란트만 카페는 프로이트가 즐겨 찾던 카페로 프로이트가 자주 앉던 자리도 있다고 한다.

그 자리는 란트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한번씩 눈길을 줄 수 밖에 없는 자리로  
옆문으로 들어왔다 해도 화장실에 가려면 한번씩 시선을 던질 수 밖에 없는 자리라고 한다.

사색하기 좋은 구석자리가 아닌 모든 사람들의,  
특히 아름다운 여성들의 눈에 띄는 것을 좋아해 눈에 잘 띄는 자리에 주로 앉았던 프로이트.

^^ 그도 보통의 남자였나 보다.'

란트만 카페를 본 후 가던 방향으로 또 걸어갔다.

조금 걸으니 이번엔 베토벤의 명곡이 탄생한 집인 파스칼라티하우스가 나오고  
맞은편엔 유럽의 명문 대학인 빈 대학이 보인다.



유럽의 명문 대학인 빈 대학

루돌프 4세가 프라하 대학보다 약간 뒤늦은 1365년 창설한 대학이다.

새삼 느끼는 건데 이 곳 빈의 건축물들은 프라하에서 본 건축물들과 쌍둥이처럼 흡사한 것들이 많다.

문 입구의 사람 조각상도 그렇고 건물 위쪽 둘레에 사람 조각상들을 세워 놓은 것도 그렇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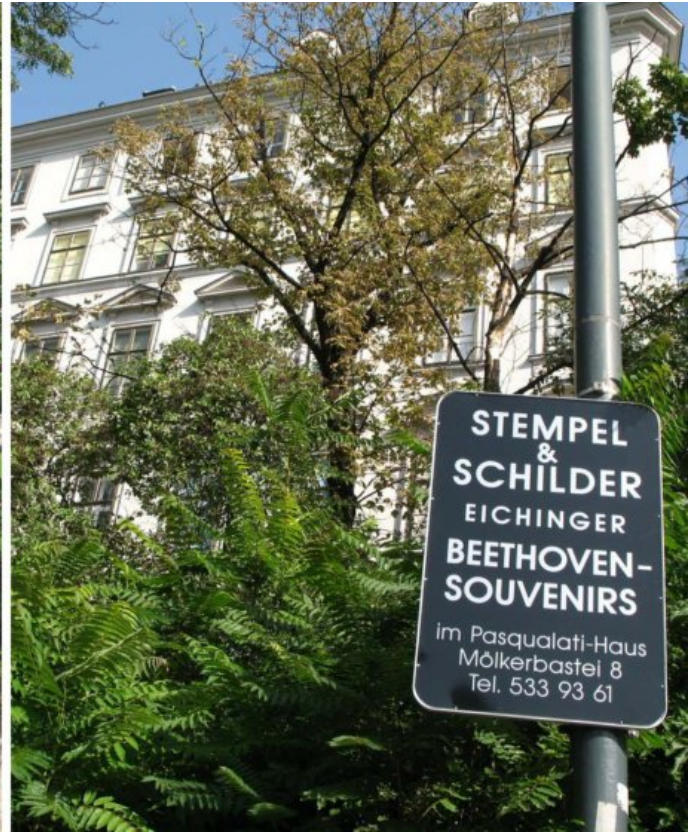
빈 대학의 지붕은 프라하의 국민 극장의 지붕과 같은 모습이다.





#### ▲ 파스칼라티 하우스

베토벤은 35년간 50여 곳 혹은 80여 곳을 전전했다는 자료가 있을만큼 수 없이 많은 집을 전전 했는데  
 뮐카 바스테이 8번지에는 베토벤이 1804년부터 1808년까지, 그리고 1810년, 1815년 세 차례나 살았던 집이 있다.  
 그는 이 곳에 살면서 교향곡 4,,5,7,8번과 오페라 '피델리오', 피아노협주곡 4번, 현악 4중주 등을 작곡했다.



베토벤의 파스칼라티하우스임을 알려주는 표지판(?).

파스칼라티는 이 집의 주인이었던 요한 폰 파스칼라티의 이름을 다서 붙인 이름이다.





## Pasqualatihaus

▲  
그가 살던 집이나 아스팔트가 아닌 포석이 깔린 길이나 모두 18세기의 모습 그대로인데  
베토벤이 살던 5층 집은 이제 박물관으로 꾸며져 있다.

**파스칼라티하우스**가 있는 길 저쪽에는 **빈대학**이 보인다.

베토벤이 이 집에 살던 무렵엔 빈 대학이 슈테판 성당 뒤쪽에 있었는데 환상도로가 생기면서 이 쪽으로 □겨운 것이다.





▲  
파스칼라티하우스 주변



▲  
트램 정류장 옆 **버스 정류장**  
(**아우토부스**는 버스라는 뜻, **할데슈텔레**는 정류장이라는 말)

다음 목적지는 **프로이트 기념관**이다.  
트램을 타러 정류장으로 GO GO.



트램을 타기 위해 파스칼라티하우스에서 조금 걸어 쇼텐토어역에 도착했다.

쇼텐토어역에서는 링을 순환하는 1,2번트램뿐만 아니라 U2 호선, 그리고 D번 트램도 탈 수 있다.  
'시간도 별로 없는데 어떡하지...가, 말어.' (프로이트 기념관엘 가볼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하는 중)

그 때 D번 트램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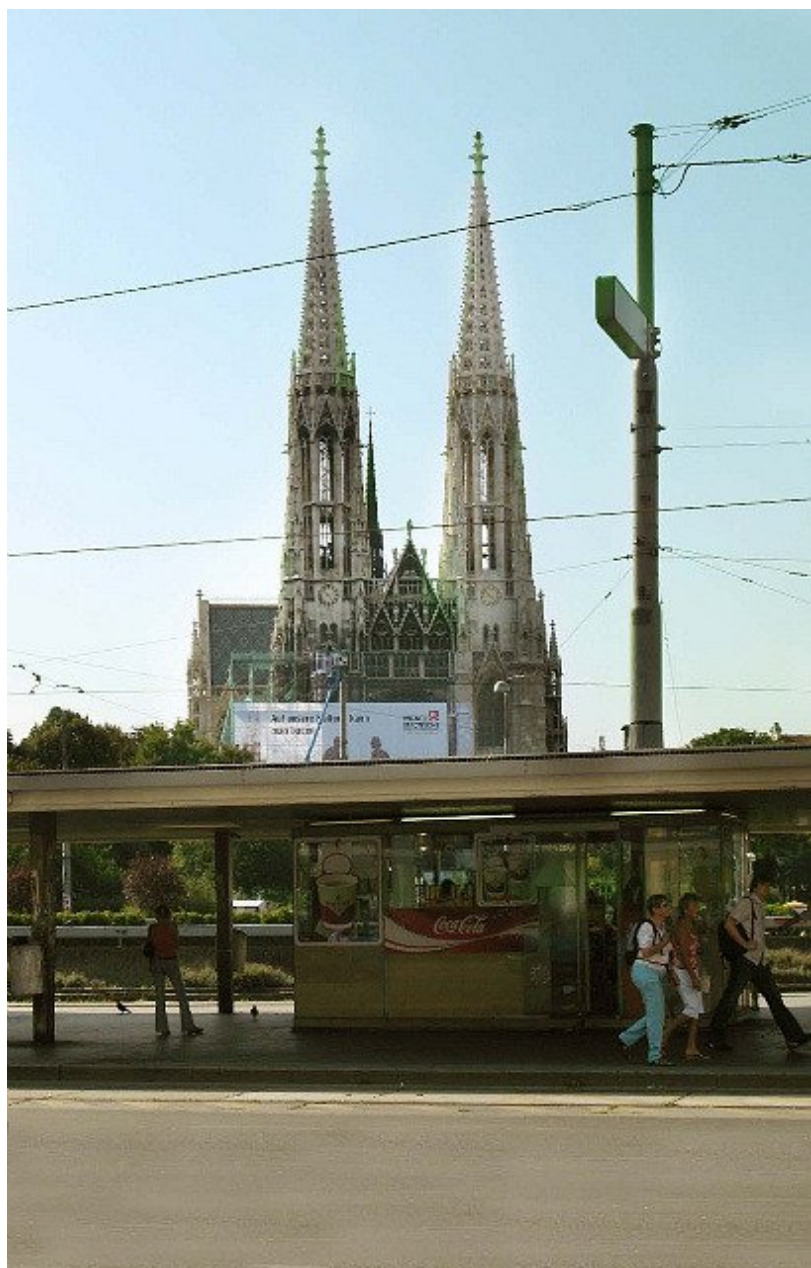
'그래 가보자. 걸만 보고 오지 뭐.'

나는 D번 트램을 타고 프로이트 기념관으로 향했다.

사실 난 미술관이나 독특한 건축양식을 한 건축물이 아니면 박물관이나 기념관 같은 종류의 내부에는 관심이 덜 한 게 사실이다.  
그래서 시간에 쫓기거나 생각보다 입장료가 비쌀 땐 내부의 관람을 생략해도 크게 아쉬워하지 않으며 늘 이렇게 핑계를 댄다.

'시간도 부족한데 걸이라도 볼 수 있으니 다행이지 뭐.'





### ▲ 보티브 교회

〈쇼텐토어역〉에 도착하니

맞은편에 레이스처럼 가느다란 모자이크 모양의 아름다운 지붕이 인상적인 〈보티브 교회〉가 보인다.

〈보티브 교회〉는 〈막시밀리안 대공〉이 1853년 2월 18일 이곳에서 일어났던 〈프란츠 요제프 황제〉의 암살미수사건에서 형이었던 〈프란츠 요제프 황제〉의 무사함에 감사하며 헌납한 교회로 1879년 교회가 완성되었는데 멕시코 황제가 되었던 〈막시밀리안〉은 혁명으로 이미 처형된 후였다고 한다.



### ▲ 프로이트 기념관

〈프로이트〉가 1891년부터 나치에 쫓겨 런던으로 망명한 1938년까지 살던 집이다.

내부 관람은 생략했지만 1층에는 당시의 진찰실이 재현되어 있고,  
2층의 기념실에는 주로 사진을 전시하여 〈프로이트〉의 생애를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한다.









프로이트 기념관 주변의 모습

아래 사진의 왼쪽 건물은 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물이 아닌 것 같아 눈에 띄어 사진으로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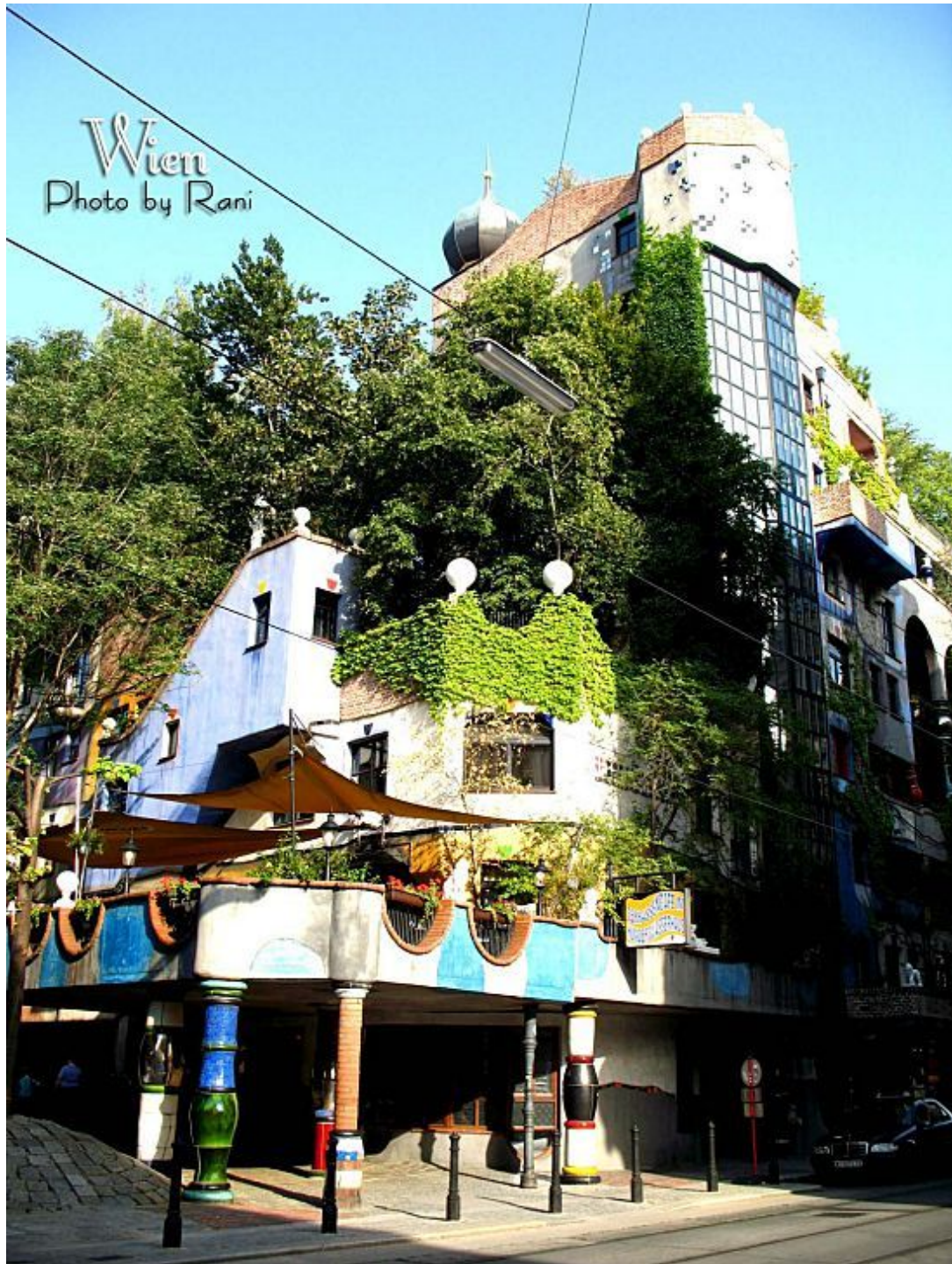
내가 **비엔나**에 다시 오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훈데르트바서**를 만나기 위해서다.

훈데르트바서 하우스, 쿤스트하우스 빈, 슈피텔아우 쓰레기 소각장 등등.

다채로운 색채와 곡선, 지붕 위에 심어진 나무, 사진으로만 봐도 가슴 들뜨게 하던 그의 건축물들을 지금 만나러 간다.

Schottenring에서 N번 트램을 타고 Hetzgasse에서 하차하여 조금 걸으니

"아! 보인다. 보여."



### ▲ 훈데르트바서 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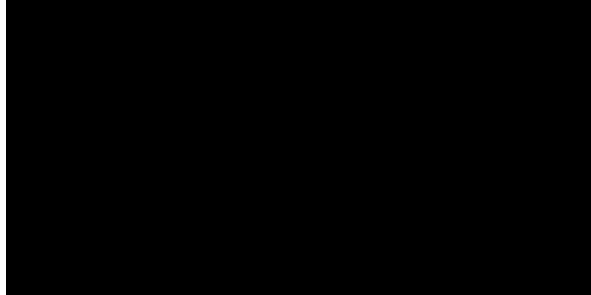
오스트리아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화가이자, 건축가, 환경운동가, 평화주의자인 Friedrich Hundertwasser (1928~2002)가 1986년 빈 시의 의뢰를 받아 지은 시영주택으로 지금도 사람들이 실제로 생활하는 건물이다.

'나도 이런 멋진 집에서 한 번 살아 봤으면....'

물론 매일 같이 북적이는 관광객들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불편함들을 감수하며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동화 속에서 **'툭'** 튀어나온 거 같은 집에서 한 번 살아봤음 좋겠다.





그의 건축물들을 보며 바르셀로나의 **가우디**가 떠올랐는데 알고 보니 **훈데르트바서**는 **가우디**의 수제자라고 한다.

'신은 직선을 모른다. 고로 자연에는 직선이 없다'라는 사상으로 구부러진 자를 가지고 다녔다는 천재 건축가 **가우디**,

그리고 그와 같은 사상으로 역시 구부러진 자를 가지고 다녔다는 **훈데르트바서**.

내가 **훈데르트바서**의 건축물을 그토록 만나보고 싶어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다.





자연과 건축물의 조화를 통한 인간성 회복을 주장하는 그의 건축 작품답게 건물의 곳곳에서는 나무와 식물들이 자라고 있다.



건물의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제각기 다른 모양한 기둥들







제 각각의 모양과 크기를 한 창문과 **알록달록**한 벽.  
**알록달록**한 파스텔 색채는 **하늘빛**, **태양빛**, **물빛**을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

"공동주택도 이렇게 지을 수 있잖아. 우리나라 아파트, 너무 획일화 된 것 아니니?"  
 (물론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긴 하겠지만...)



건물 앞에는 분수대가 있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정원이 나온다.  
 분수대 뒤쪽의 곡선 부분으로 된 곳은 아이들의 놀이 공간이라나다.  
 이 곳에서 아이들은 미끄럼을 타며 놀기도 한하는데....  
 '아~부럽,부럽,부럽다.'

한동안 직장일도 너무 바쁘고 다음 여행지에 대한 공부까지 하느라 오랜만에 블로그를 열어 보았습니다.

어! 그런데 이게 무슨일까요..200여명 안팎이던 방문자 수가.....허걱.

그래서 처음엔 울집 컴퓨터가 드디어 바이러스에 감염됐구나 했었습니다.

그러다 정신 차리고 댓글을 읽어 보니 제 글과 사진이 다음 메인에 소개가 되었네요.

이런 일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나 일어나는 일인 줄 앓았었는데...

방문해 주신 분들, 게다가 댓글까지 남겨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구요,

훈데르트바서에 관심이 있어서 들려주신 분들은 칼케빌리지와 쿤스트하우스 빈,

그리고 쓰레기 조각장과 찰츠부르크의 현대 미술관(?) 사진도 있으니 그것들에도 관심 가져 주세요.^^



(사진과 글이 모두 부끄러운 수준이긴 하지만요.^^)

2007.08.02

## Ranee in Vienna

-칼케 빌리지-



시영주택 맞은편에 위치한 **칼케빌리지**

훈데르트바서 건축의 테마파크 같은 **칼케빌리지**를 구경하며 시영주택의 내부를 구경하지 못한 아쉬움을 달랬다.





칼케빌리지 내부에는 **상점**들과 **레스토랑**이 들어서 있는데 한 눈에 봐도 그의 건축 스타일로 꾸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곳 **칼케빌리지**에서 꼭 봐야 할 곳은 바로 **화장실**.  
지하에 있는 **화장실**에 가려면 계단으로 내려가야 한다.



Welcome  
Toilet of Modern 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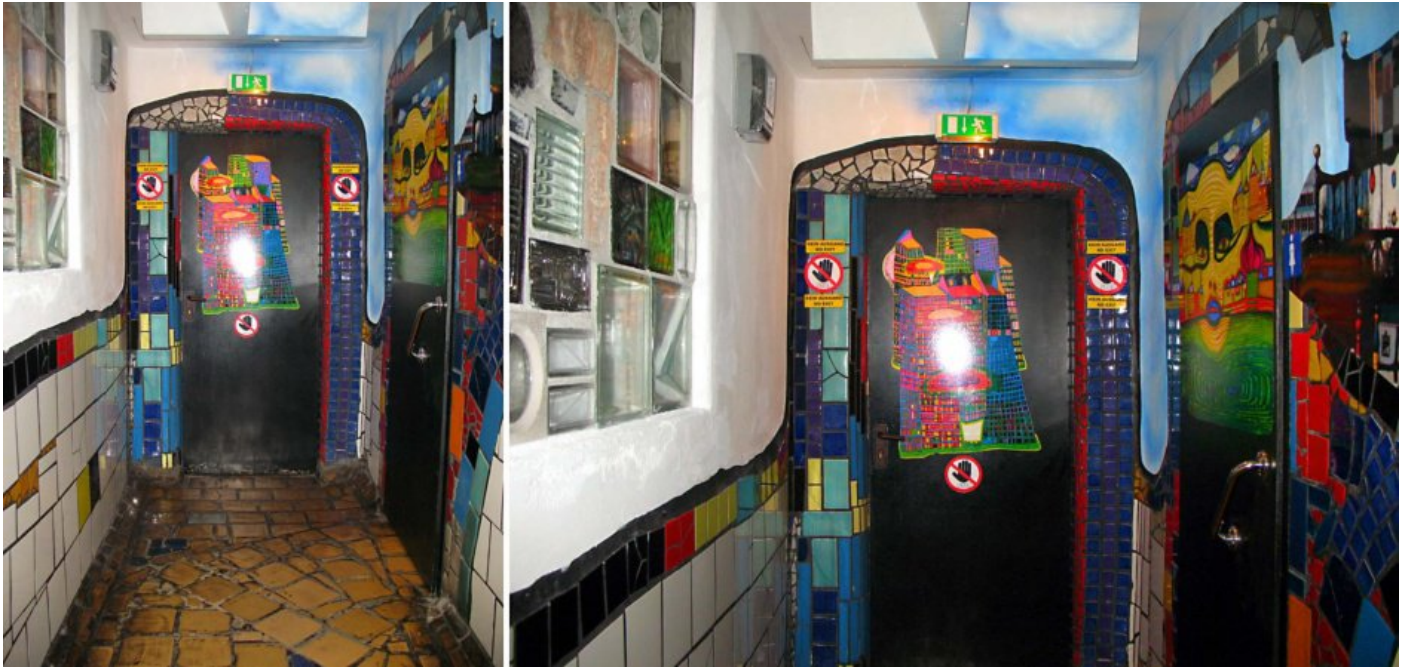
칼케빌리지의 화장실

입구의 기과한 타일 조각...참 독특하다. 진짜 독특하다.

ENTREE라 써 있는 곳에 동전을 넣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 갔다. (0.6유로)

그다지 볼 일이 보고 싶은 건 아니었지만 그의 작품 안에서 볼 일을 보는 영광을 누려봐야지.





▲  
여자 화장실 입구

문에는 훈데르트바서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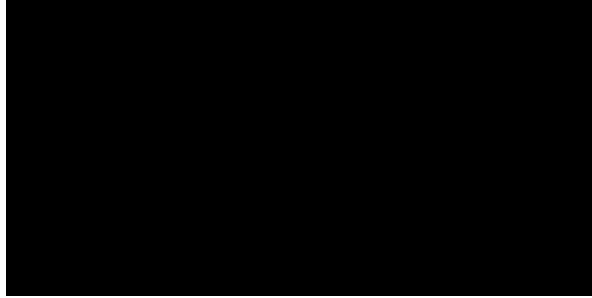
▲  
벽면의 그의 작품만 아니라면 정말 공중 화장실 같은 느낌이다.

거울은 그답게 만들었는데 세면대는 왜 평범한 모양인 걸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부분을 미처 생각지 못한 건지...



설마 후자는 아닐 것 같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뭘까 궁금하다.



2007.08.02

\*Ranee in Vienna

-쿤스트하우스 빈-

시영주택과 칼케빌리지에서 도보로 5~10분 정도 거리에는 훈데르트바서의 또 하나의 건축물, **쿤스트하우스 빈**이 있다.

관광객들의 발길도 뜸한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잡고 있어 길을 잘 못들었나 미심쩍어 하고 있는데  
그 때 마침 마침 그의 건축물에서 많이 본 기둥들이 눈에 띈다.



▲

반가움도 잠시 '어! 문을 닫았네.'



가까이 가보니 **훈데르트바서 미술관(쿤스트하우스 빈)**이 아니다.

여기서부터 200m를 더 가란다.

"앗! 가슴이 철렁했었잖아~~~~"





1974년 뉴질랜드를 방문한 이래 빈과 뉴질랜드에서 반반씩 지낸 **훈데르트바서는** 모든 건물의 지붕은 **식물**로 덮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하더니 역시나 건물의 지붕에는 나무가 울창(?)하다.







건물의 외관은 시영주택과 비슷한데, 내부에는 그림 같기도 하고, 만화 같기도 한 그의 작품들이 전시돼 있다.



2007.08.02

## Ranee in Vienna

-훈데르트바서의 쓰레기 소각장-

Wien에서의 **훈데르트바서**를 따라 가는 건축 여행 마지막 코스인 **쓰레기 소각장** 으로 향했다.

U-Bhan 4호선 타고 Spittelau역에서 내려 지상으로 올라오니 바로 그 사진 속에서 보던 특이한 건물이 눈에 들어온다.

'히야~'

외계인의 우주선 같기도 하고 올림픽의 성화 같기도 한 우뚝 치솟은 기둥하며 원색과 곡선으로 치장된 벽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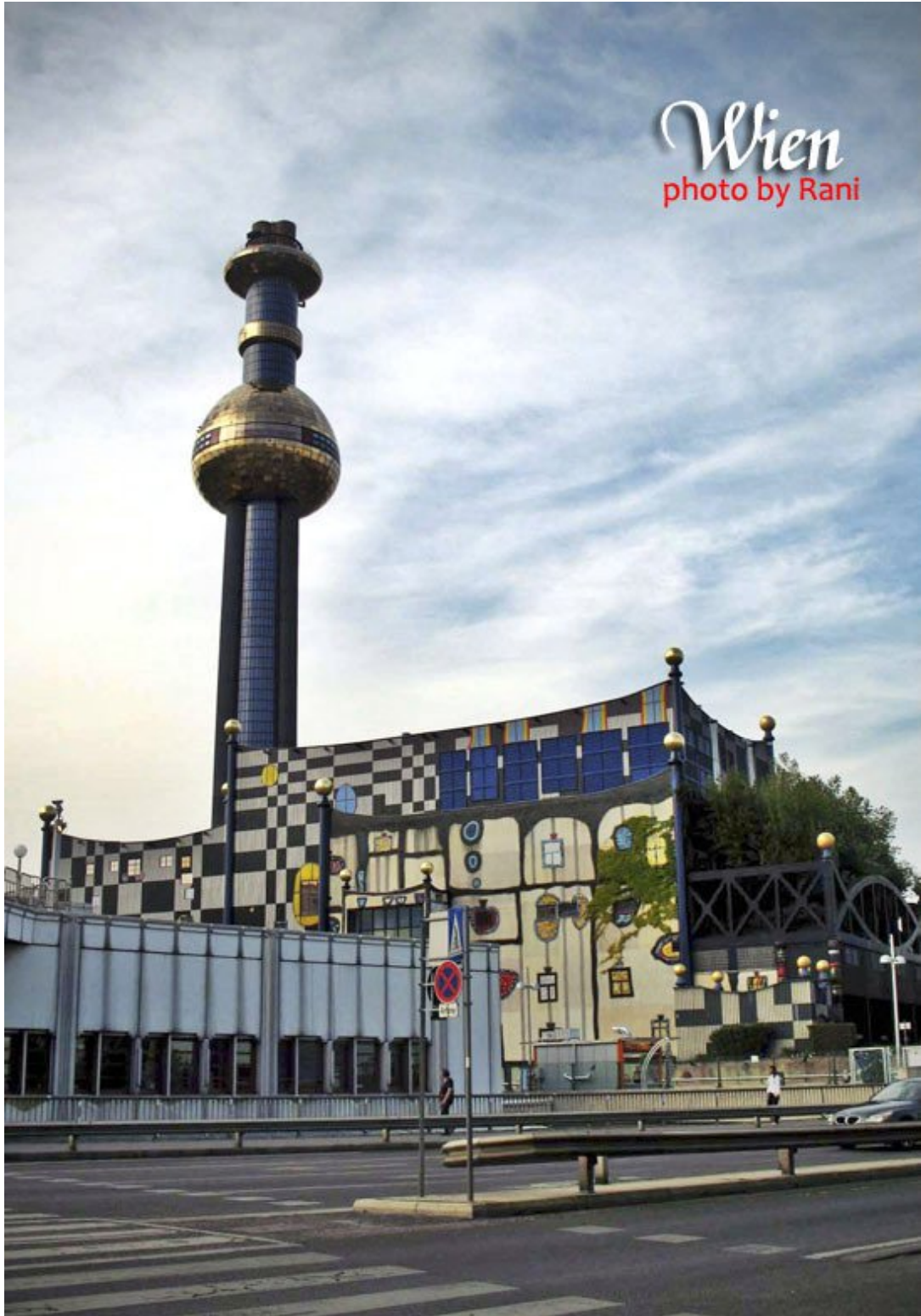
이것이 과연 일반인들이 멀리하기 일쑤인 소각장이란 말인지...

그의 기발함에 입이 벌어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금색의 양파처럼 생긴 타워가 상징인 쓰레기 소각장.  
이 건물 또한 근대 건축이 배제하는 다채로운 색채와 곡선으로 건축되어 있다.

Wien  
photo by Rani







예 사롭지 않은 이 건물의 정체는 또 무엇인지...???

미니  
<http://blog.daum.net/mirolove>



▲  
SERVICE CARD CENTER ??



▲  
주변의 모습





Spittelau역에서 다시 4호선을 타고 케텐브뤼겐가세로...

2007.08.02

## Ranee in Vienna

-메디용하우스 & 마올리카하우스-

19세기말 각국에서는 새로운 예술 운동이 일어났다.

프랑스와 벨기에에서는 **아누보**, 독일어권에서는 **유겐트 슈틸**(청년양식)이라 부르는.  
빈의 경우, 건축에서는 **오토 바그너**, 회화에서는 **클림트**가 유겐트 슈틸의 중심 인물이었다.

나는 이제 **훈데르트바서**에 이어 **오토 바그너**의 작품들을 살펴볼 예정이다.  
물론 작년에도 **오토 바그너**의 작품, **카를스플라츠** 역사와 **우편 저금국**을 보긴 했지만.  
시간이 부족해 **〈메다용 하우스〉**와 **〈마올리카 하우스〉**를 보지 못했던 것을 얼마나 안타까워 했던지....  
**비엔나**에 다시 오게 된 것이 새삼 너무 좋다.



여기는 케텐브뤼켄가세(kettenbruckengasse) 역...  
 지도에서 찾아보니 <메다용 하우스>와 <마울리카 하우스>는  
 U-Bhan 4 케텐브뤼켄가세(kettenbruckengasse) 역 근처에 있는 것 같아 일단 여기까지 오긴 왔는데...



방향 감각이 무지하게 없는 나에겐 메다용 하우스와 마울리카 하우스를 찾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  
 어디로 가야 할까 고민하다 문득 생각난 나침반...  
 이번 여행을 위해 구입한 나의 나침반이 처음으로 실력 발휘를 할 때가 온 것이다.  
 나침반이 알려주는대로 길을 걸으니 마술처럼 메다용 하우스와 마울리카 하우스가 나타났다.





'오~있다 있어.'

금빛 문양과 꽃무늬 문양의 건물이 눈에 들어 오는 순간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겠다.

'이래서 내가 여행에 미치는 거라구.'

왼쪽의 꽃무늬 문양이 있는 건물이 **마울리카 하우스**, 금빛 장식으로 빛나는 건물이 **메다웁 하우스**다.



▲  
메다용 하우스의 눈에 띄는 금세공 장식



▲  
마울리카 하우스

이탈리아의 마울리카 타일로 외벽 한 면에 붉은 장미꽃을 묘사한 집합 주택





▲  
메다용 하우스와 마울리카 하우스 그리고 MARKTAMT



▲  
MARKTAMT (시장)

내부 수리중이어서 들어가 볼 수가 없었다.



▲  
복개된 강가를 따라 길게 조성된 **나슈마르크트**

시장 구경을 하려고 버르고 별렀던 곳인데 문을 열지 않았다.



본 것이라곤 굴러다니는 쓰레기 뿐



아직 해는 지지 않았지만 벌써 7시 30분이 넘는 시각.

서둘러야겠다.

시장 구경을 못한 아쉬움을 안은채 다시 역으로.



케텐브뤼켄가세(kettenbruckengasse) 역

제체시온을 보기 위해 카를스플라츠 역으로 가야겠다.



### 카를스플라츠 역

제체시온을 보기 위해 왔으나 카를 교회가 먼저 보이니 잠깐 보고 가야겠다.

2007.08.02

## Ranee in Vienna

-카를교회-

카를 교회는 전에도 왔던 곳이기에 그냥 지나쳐 가야겠다고 생각했던 곳이다.

하지만 막상 카를스플라츠역에 당도하니 맘이 또 바뀐다.

'그래, 멀리서만 보고 가지 뭐.'

정말 멀리서만 보았다. 시간도 없고 다리도 아팠으므로...

해가 기울기 시작하는 하늘 아래 카를교회는 환한 햇살 아래 보았던 아련한 기억 속의 카를교회와 사뭇 다른 느낌이다.

교회 앞에서 단란해 보이는 가족이 지나가는 걸 보았다.

'아이가 넷이나 되는 걸까?'

문득 혼자인 내모습이 쓸쓸하게 느껴진다.





▲  
빈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는 **카를교회**  
18세기 전반, **바로크** 양식으로 세워진 교회이다.

#### 카를로 보로메오 성당 Church of St. Charles Borromeo(1725년)

카를 성당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이 교회는 원래는 시의 성벽 밖 공터였던 곳에 위치해 있으며 빈의 랜드마크이기도 하다. 1713년 황제 카를 6세는 빈에 흑사병이 창궐하자 병마가 물러나면 역병의 수호 성인인 성 카를로 보로메오에게 헌정하는 교회를 짓겠다고 맹세하였다. 마침내 빈이 흑사병에서 해방되자 합스부르크 왕가에서 인기가 좋았던 베르나르트 피셔 폰 에를라흐(1656~1723년)가 감독을 맡아 공사가 시작되었고 그의 아들 요세프(1693~1742년)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완공하였다. 성당은 웅장하고 균형잡힌 파사드를 자랑하는데, 파사드는 왕궁인 호프부르크에서 보았을 때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할 수 있도록 특별히 넓게 만들어졌다.



2007.08.02

## Ranee in Vienna

-카를스플라츠-

카를 교회에서 짧은 시간을 보내고 쌍둥이 역사 두 개가 마주하고 있는 **카를스플라츠**로 발걸음을 옮겼다.  
두 개의 역사 중 동쪽의 것은 현재 **카페**로 쓰이고 있고 서쪽의 것은 **박물관**으로 쓰이고 있다.







▲  
현재 카페로 쓰이고 있는 동쪽의 역사



▲  
박물관으로 쓰이는 서쪽의 역사



▲  
금박을 입힌 유겐트슈틸 장식과 해바라기 문양으로 유명하다.

● 1899년에 완공된 오토 바그너의 카를스플라츠 역사는 현대 건축의 공법과 기능 형식을 갖추었지만 분리파 스타일의 장식적인 모티프가 함께 한 절충적 현대 건축으로, 당시로는 혁명적 건축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러한 혁명적이었던 건축물도 지하철 역사가 건설되면서 헐리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는데 빈 공대생들이 카를스플라츠 역사 앞에 모여 철거 반대 연좌 농성을 벌인 결과 빈 시당국이 카를스플라츠 역사를 해체해 놓았다가 지하철 공사가 다 끝난 뒤에 그 자리에 재조립해 놓게 됨으로써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2007.08.02

## Ranee in Vienna

-제체시온-

카를스플라츠역 근처에 제체시온(분리파 회관)이 있음을 까맣게 모르고 그대로 케른트너 거리로 향했던 나의 무지함에 가슴을 찔던 그 때는, 정말로 내가 다시 비엔나에 올 수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었다. 그러나 나는 이 곳에 왔고, 그렇게 가슴치며 안타까와 했던 그 곳을 찾아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중이다.



카를스플라츠역에서 지나가던 아주머니에게 제체시온 가는 길을 물었으나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하는 수 없이 대강 방향만 잡아서 느낌이 가는대로 걷고 있는데 눈에 띄는 건물 발견,  
프라하에서, 비엔나에서, 부조가 장식되어 있는 건물들을 수없이 보아왔지만 그래도 이건 좀 더 새롭다.  
언뜻볼 땐 사람과 동물의 형체를 결합해놓은 형상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상상의 새 같기도 하다.

'그들의 거리는 거리 자체가 조각 전시장이니 굳이 전시장엘 갈 필요가 있을까?'

정말 부럽고 또 부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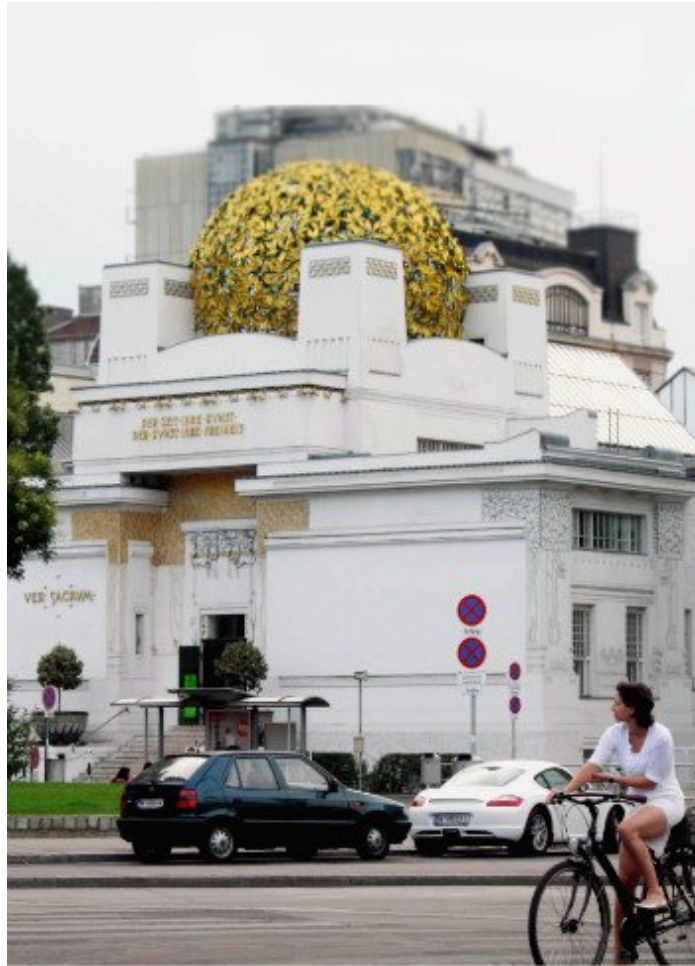
▲  
운이 좋았다.

삼질하지 않고 한 번에 찾았으니...

하지만 시계는 벌써 8시를 가리키고 있다. 늦은 시각이다.

시간이 너무 늦어서 입장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났을 거 같기도 하고, 이 비엔나에는 아직도 보고 싶은 것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서  
아쉽지만 제체시온 안의 벽화(클림트가 그린 3막으로 되어 있는 '베토벤 프리즈')들을 보고자 했던 것은 없던 일로 하고  
건물의 겉모습만 보고 뒤돌아 서기로 했다. 겉모습을 본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행복하다.





요제프 마리아 올브리히와 화가 클림트는 1897년 낡은 예술과 인습을 따르는 예술가들에 반기를 들고, 새로운 예술 창조를 목적으로 하여 제체시온이라는 분리파를 결성하였다. 제체시온(분리파 화관)은 오토 바그너의 영향을 받은 건축가 요제프 마리아 올브리히가 자신들의 활동 거점으로 삼기 위해 1898년 세운 건물이다.



지붕을 장식하고 있는 황금빛 구형 장식물, 그 독특함 때문에 멀리서 보아도 한 눈에 들어온다

2007.08.02

\*Ranee in Vienna

-케른트너거리-

**제**체시온을 보고 뒤돌아 서는 순간부터 또다시 갈등이 시작했다.

카를스플라츠 역에서 1호선을 타고 **도나우 섬** 으로 향할 것인가, 아니면 **케른트너 거리**로 가서 링 안쪽을 둘러 볼 것인가.  
링 안쪽은 작년에도 둘러본 곳이지만 **하스하우스**와 **아돌프 로스**의 건축물들을 눈 뜬 장님처럼 지나쳐버린 것이 안타까워 다시 가보고 싶기도 하고, **도나우 섬**에서 도나우강과 **우노시티**를 바라보며 차 한잔의 낭만을 느껴보고 싶기도 하다. 한동안 갈등하며 쉽게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카페 무제움** 이 눈에 띄어 나의 갈등은 생각보다 쉽게 끝나고 말았다.

그래 이번엔 '**아돌프 로스**'를 만나보는거야."





카를스플라츠와 케른트너거리를 안내하는 이정표 앞에서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나,  
하지만 멀리 있음에도 눈에 들어온 카페 무제움 간판이 나의 갈 길을 제시해주었다.

카페 무제움 앞 잔디밭에 있는 동상은 누구의 동상인지...???

동상으로 남겨질만한 사람이라면 오스트리아 사람에겐 잘 알려진 사람일텐데, 아흑~ 나는 모르겠더라.



**프리드리히 슈트라세에 있는 카페 무제움**

20세기를 1년 앞둔 1899년 아돌프 로스의 작품이다.

현대적인 장식의 재통합이 간결한 실내 장식으로 표현된 작품으로,  
아무런 '문신이 없는' 파사드는 '허무주의자의 카페'라는 별칭을 낳았다고 하며

로스는 모든 대상을 실용주의적 가치에 귀속시키면서 카페 무제움을 통해 아름다움과 효용성의 등식을 증명했다고 한다.

-빈이 사랑한 천재들 중에서-

걸에서만 봐서 그럴까 건축에 문외한이어서 그럴까, 〈빈이 사랑한 천재들〉이라는 책을 읽기 않았더라면,  
그래서 〈아돌프 로스〉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더라면 나는 사실 이 건물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을지 모른다.



### 오페라 하우스

카페 무제움에서 얼마나 걸었을까.

발바닥은 불이 붙은 것처럼 화끈거리고 발걸음은 점점 더 느려지고 있다.

그 때 눈에 익숙한 건물이 눈에 들어 온다.

오페라 하우스...

그러나 나는 일년 전과 마찬가지로 이 곳에서 오페라를 보는 일은 엄두도 내보지 못했다.

어쩌면 관심의 부족이겠지.

너무 너무 간절히 원하면 나도 모르게 용기가 생기곤 했으니까.

언젠가 이 곳에서 오페라를 즐겨줄 날이 오게 될까???







#### 케른트너 거리의 스타벅스에서

정말 정말 더이상은 견지 못하겠다 싶어 스타벅스에서 대강의 요기도 할겸 쉬어 가기로 했다.

작년에도 들렸던 곳이라 덜 어색하고 맘이 좀 편하다.

여행내내 울렁대는 위장 상태로 인해 식사다운 식사를 못해 본지 오래,  
그나마 속에서 받아주는 단맛의 푸딩 비슷한 것과 생크림이 떠있는 커피를 시켰다.  
커피를 마시며 아무 생각없이 사람들을 구경 하는 것도 그럭저럭 재미있다.



스타벅스에서 나와 근처의 **자허호텔** 쪽으로 걸어 갔다.  
 호텔 뒤쪽으로 보이는 것은 왕궁 정원인 것 같은데....  
 아~ 너무 발이 아프다. 못가겠다.



자허호텔은 드라마 '봄의 왈츠' 때문에 알게 된 곳이지만  
 나중에 이 곳의 자허 토르테가 유명하다는 것을 알고는 이번 여행에서 꼭 자허 토르테를 먹어봤음 했었다.  
 하지만 막상 이 곳에 오고보니 도저히 혼자 들어가 먹을 용기가 나지 않는다.  
 꼭 먹어보고 싶었는데 말이다.







### 케른트너 거리

케른트너 거리는 많은 여행자들에게 분명 인기 있는 곳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명품에 관심이 없어 그런가 명품숍으로 가득찬 이 거리에 그다지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

게다가 오늘은 너무 늦어서 그런지 아님 다른 이유 때문인지 그나마 볼거리인 거리 공연도 보이지 않

이 거리에서 꼭 찾아보고 싶었던 **아돌프 로스의 '아메리칸 바'**도 찾아내지 못했다.

이 거리에서 오래 헤맸 이유가 없기에 나는 **'하스 하우스'**가 있는 슈테판 성당 쪽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 To be continue...

2007.08.02

\*Ranee in Vienna

-하스 하우스 & 슈테판 성당-

지난 여름 여행에서 슈테판 성당에 흘러  
눈 뜨고도, 코 앞에 두고도 보지 못했던 하스 하우스를 꼭 일년만에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엔 하스 하우스 네가 주인공이야.'





## Hass House Hans Hollein 1990

구시가지의 중심부인 슈테판광장의 정면에 등장한 **하스 하우스**는 오스트리아 건축가 **한스 홀라인**이 설계한 것으로 1990년 당시 그 대담함에 논쟁을 불러 일으키기도 한, **성 슈테판 대성당**과 함께 빈 건축의 주된 축을 이루는 또 하나의 명소라고 한다.



슈테판 성당과 마주보고 있는 하스 하우스

날은 저물고 지도 위엔 보아야겠다고 체크해놓은 곳들이 아직도 많아 남아 있어  
 하나라도 더 보고 싶은 맘에 그랬겠지만  
 그래도 하스 하우스만큼은 내부도 구경해 볼 걸 그랬단 생각이 든다.  
 나의 여행은 왜 늘 이모양인지...  
 나도 한 도시에서 3일이상씩 머무는 여행을 해보고 싶다.  
 비엔나는 건축, 음악, 미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볼 것이 넘쳐나는 매력적인 도시다.  
 한번쯤은 더 가 봐야 할 것 같은 비엔나....

☞ To be continue...

2007년 8월 2일

## Ranee in Vienna

-페스트 기념주 & 성 페터 교회-

유럽을 여행하다보면 나라마다 공통적 볼 수 있는 건축물들이 있는데

오페라 하우스와 페스트 기념주가 그것이다.

특히 페스트와 관련된 내용을 표현한 건축물들은 일일이 다 기억하기도 힘들 정도.

페스트가 얼마나 큰 재앙이었는지, 페스트로부터 벗어난 것을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했는지,  
누군가의 설명을 듣지 않아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았다.





### ▲ 페스트 기념주

그라벤 거리의 중앙에 있는 페스트 기념주는  
 약 1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페스트의 유행이 끝난 것을 감사하며  
 1693년 레오폴드 1세가 세운 삼위일체상이다.



### 성 페터 교회

그라벤의 중간쯤에 있는 성 페터 교회는 빈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이다.

**이** 빈 여행을 떠나기 전 내가 읽은 책 중에 "클림트에서 프로이트까지 빈이 사랑한 천재들"이란 책이 있다.

얼마나 흥미로운지 밤을 새워 단번에 읽어버렸던 책이다.

이 책에는 **클림트** (몽환적 에로티시즘), **프로이트** (위대한 집착), **모차르트** (신이 질투한 악동), **베토벤** (폭풍 같은 운명), **아돌프 로스** (장식은 범죄다), **오토 바그너** (현대 건축의 거인) 이렇게 여섯명의 천재가 등장한다.

나는 그들 여섯명의 천재들 중 가장 생소한 사람이면서도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긴, **전통적인 빈의 디자인과 빈 분리파의 과도한 장식을 비판했던** 건축가 **아돌프 로스**를 찾아 가는 중이다.



왕궁 앞의 로스 하우스를 보기 위해 그라벤 거리에서 **콜마르크트 거리**로 접어들었다.

간판을 대신한 듯한 시계도 예쁘고 상점의 디스플레이도 예술처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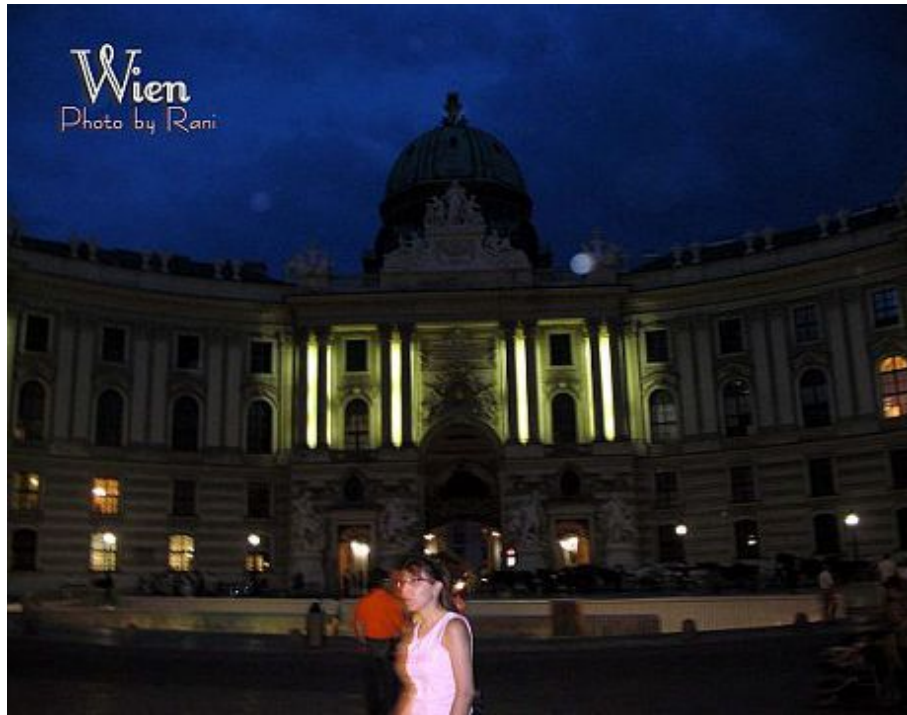
로스 하우스를 찾아 가던 중 뜻하지 않게 콜마르크트 16번지에 있는 만츠서점을 먼저 보게 되었다.

카페 무제움에 이어 두번째로 보는 그의 작품이다.

파사드와 실내 인테리어를 그가 말아서 했는데 파사드만 보아도 그의 작품인 줄 알 수 있었다.

사진으로 본 적있는 크니체 양복점과도 파사드가 거의 유사한 느낌이었으니까.

1912년 문을 연 만츠 서점은 95년째인 지금도 여전히 서점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왕궁이 보인다.

하지만 내가 이번에 보려고 하는 것은 왕궁이 아니라 로스 하우스다.

슈테판 성당이 아닌 하스 하우스가 주인공이었던 것처럼

이 곳에서도 역시 이번만큼은 왕궁이 아닌 로스 하우스가 주인공이다.



#### ▲ 로스 하우스

1911년 완공된 미하엘러 광장의 로스 하우스는 6층짜리 주상복합건물로 건설 당시 빈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졌었던 건물이다. 이유인 즉 장식을 거부한 밋밋한 건축물이었기 때문.

언론에서는 온갖 비난을 퍼부어댔고 로스는 이러한 건물을 짓는다고 경찰청에도 불려갔으며 빈 당국은 계속 해서 장식 없는 건물은 안된다고 주장해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창문들에 화분을 장식하는 것으로 타협을 했다고 한다. 이렇듯 그의 장식 없는 건축물이 논란이 된 것은 빈의 건축적 전통에 대한 반역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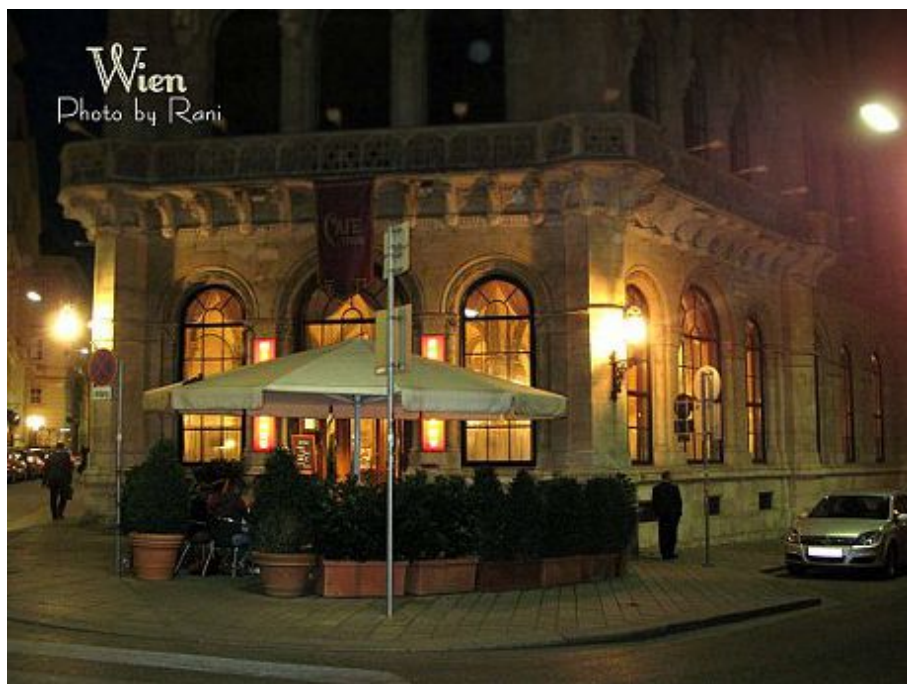
로스 하우스는 황실 가족들이 드나드는 출입구인 미하엘러토르와 마주보고 있어 눈을 감지 않는 이상 이 문을 드나들 때마다 이 건축물을 보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래서 유난히 장식을 좋아했던 프란츠 요제프 황제와 보수적인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은 분노했고 다시는 미하엘러토르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는 실제로 부르크링 쪽으로 나 있는 부르크토르를 통해 드나들었다고 한다. 황실의 미움을 샀던 로스 하우스, 당시로서는 정말 생뚱 맞고 혁명적인 건물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든다. 화려한 건축물들에 무감각해질 무렵 본 로스 하우스는 절제미의 진수를 보는 것 같아 신선했다.

**'좀 더 환할 때 보았으면 좋았을 걸.'**





크니체 양복점인가 했는데 아니다.  
도무지 어디있는지 눈에 띄질 않아 안타까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미 지나쳐 온 상태였다.  
크니체 양복점은 그라벤 거리에서 슈테판 성당을 바라봤을 때 오른쪽에 있다고 하니  
아돌프 로스에게 관심이 있다면 놓치지 말고 보시길...



#### ▲ 첸트랄 카페

선구적인 예술가들이 그러하듯 아돌프 로스는

코코슈카, 비트겐슈타인, 쇤베르크, 크라우스, 알텐베르크 같은 추종자 그룹에게는 아낌없는 칭송을 들었고 주류 기득층과 가까웠던 다수의 예술가들에게는 가타없는 질타를 받는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었다. 빈에서는 매일같이 로스의 건축을 놓고 논쟁을 벌였는데 첸트럴 카페는 그 논쟁과 싸움의 중심지였다고 한다.

클림트가 귀부인들과 자주 어울리던 곳이기도 하다고.

인적이 너무 드문 곳에 있어서 첸트랄 카페를 찾아 이 거리를 걸을 때 사실 좀 무서웠다.

안쪽은 기웃거리볼 생각도 못하고 사진 한 장 찍고 빠른 걸음으로 이 곳을 벗어나려고 했던 기억이 있는 곳이다.



빠른 걸음으로 건다보니 눈에 익은 **보티프 교회**가 보인다.

어느새 환상도로까지 온 것이다.

"휴~살았다."

**도나우 섬**도 가보고 싶었는데 벌써 9시 30분에 가까운 시각이라 포기해야 할 것 같다.

그 곳까지 갈다오면 자정은 되어야 호텔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므로...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억지로 떼 호텔로 향한다.





▲  
Stubentor 역에서 지하철 2호선을 타고 폴크스씨어터 역에서 3호선으로 갈아탄 후 서역에서 내렸다.



▲  
그리고 다시 서역에서 58번 트램을 타고 호텔로 향한다.  
이렇게 대중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재미 때문에 자유여행이 너무 좋다.

흔히 '음악의 도시'로만 떠올리기 쉬운 빈(비엔나).

하지만 내게 있어 빈(비엔나)은 **훈데르트 바서** 와 **오토 바그너**와 **아돌프 로스**가 있어 더욱 아름다운 도시였다.

☞ '07 슬로바키아로 이어 집니다.

**브**라티슬라바로 짧은 여행을 마치고 다시 **빈**으로 돌아왔다.

**빈 남역**에 도착하여 역을 빠져나온 시각이 4시 10분, **벨베데레궁** 관람이 6시까지 가능하니까 1시간 정도는 **클림트**의 그림을 볼 수 있겠다. 작년에는 **윈부른** 궁전을 보느라 **클림트**의 그림을 포기했었고 이번엔 **브라티슬라바** 때문에 못보게 될 줄 알았는데 비록 짧은 시간동안이라도 그의 그림을 볼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쁘다. 대신 이번엔 빈 미술사 박물관 관람을 못한 것이 미련으로 남았지만...



### **빈 남역**

남역의 저 조형물이 참 특이하다.  
작년에도 있었나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데...  
"아~역 밖으로 나와 본 적이 없었구나."





작년에 이 곳에서 바라본 하늘, 참 예뻐었는데...  
오늘은 어째 그 때만 못하다

**벨**베데레 궁전은 그 때나 지금이나 아름답다









클림트의 그림이 전시되어 있는 벨베데레 상궁과 정원





구경 나온 가족의 모습이 무척 아름답다.  
그런데 아이가 몇인거야???



작년에 여기서 찍은 사진이 없어서 맘 먹고 찍어 달래 남긴 사진 한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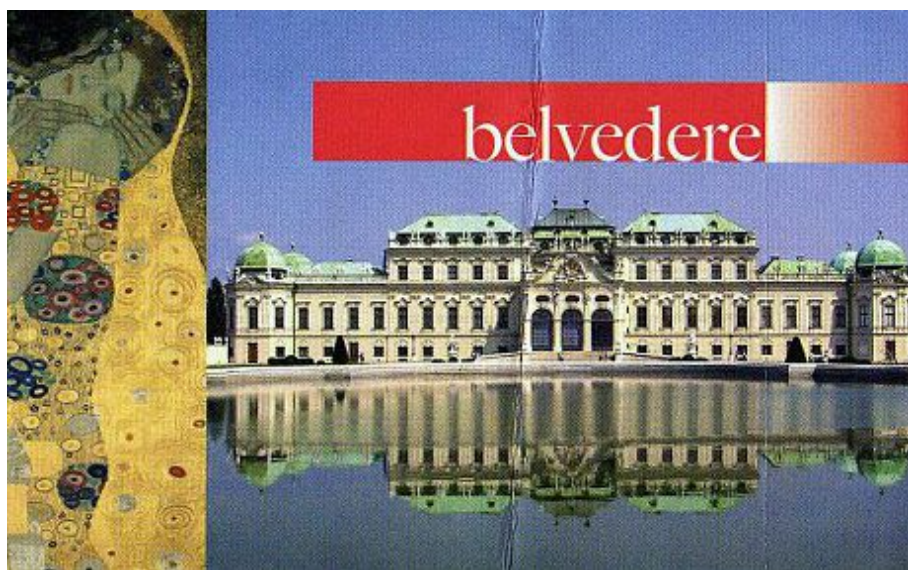
가지 각색으로 심어 났는데도 참 조화롭게 예쁘게 보이는 꽃들







상궁의 뒤쪽으로 있는 정원과 정원 아래쪽으로 보이는 하궁





티켓을 구입하고 궁전으로~  
일년동안 소망했던 클림트를 만난다.^^



오매불망 그리던 **클림트**를 만나러 미술관으로 들어섰다.

그의 분신들을 만날 생각에 가슴이 요동친다.

잠시 흥분을 가라앉히고...자~그럼 이제부터 시작.



### 키스

1907~08년, 캔버스에 유채 180×180cm 빈 오스트리아 미술관

황금빛 가운을 입고, 두 연인이 꼭 껴안고 있다.

눈을 살포시 감은 채, 사랑하는 연인의 키스를 기다리는 여인.

클림트는 키스를 기다리는 가슴 떨리고 유혹적인 순간의 긴장감을 포착하여

사랑에 대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 소니아 뱃스의 초상

1898년, 캔버스에 유채 145×146cm 빈 오스트리아 미술관



### 유디트 1

1901년, 캔버스에 유채 84×42cm 빈 오스트리아 미술관

앗시리아의 장군인 홀로페르네스를 유혹하여 그의 머리를 베어버리고 이스라엘을 구한 여인 유디트.

그러나 클림트는 나라를 구한 유디트에게서 용맹한 모습이 아닌 에로틱한 모습을 본다.

베일에 가려 보일 듯 말듯한 한 쪽 가슴, 가슴보다 더 육감적인 배꼽, 반쯤 감긴 몽롱하고 공허한 시선.

그림 속의 유디트는 적장을 베어낸 승리감에 취한 모습이 아니다.

클림트의 유디트는 주인공이 아니다.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적진으로 가 적장을 살해한 영웅도 아니고

자신의 성적 감흥과 관능적 욕구에 사로잡혀 남성을 죽인 능동적인 여자도 아니다.

주인공은 그녀 속에서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는 욕망이다.

이 욕망은 그녀의 머리 뒤로 자라난 황금빛 나무들처럼 그녀 머릿속에 쏙쏙 돌아나서

결국에는 그녀의 목과 허리를 칭칭 감으며 그녀를 관능에 사로잡힌 노예로 만들었다.

- 클림트, 황금빛 유혹 중에서-





### 프리차 리들러의 초상

1906년, 캔버스에 유채 153×133cm 빈 오스트리아 미술관

화려한 금빛 의상도 없고 클림트 특유의 에로티시즘도 느낄 수 없는,  
언뜻 보아서는 클림트가 그린 것처럼 보이지 않는 클림트의 그림이다.

이 그림에서 기하학적인 형태의 의자와 머리 뒤로 보이는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를 눈여겨 보자.

머리 뒤로 보이는 스테인드 글라스는 벨라스케스가 그린 <마리아 테레지아의 어린 시절>을 클림트가 의식적으로 인용한 것이라고 한다.

프리차 리들러의 머리 뒤에 벨라스케스가 그린 마리아 테레지아의 머리 스타일과 닮은 스테인드 글라스를 삽입함으로써

벨라스케스에 대한 경의를 표현한 것임과 동시에

독일인이지만 빈의 예술을 사랑했던 귀부인 프리차 리들러에 대한 경의를 표현한 것이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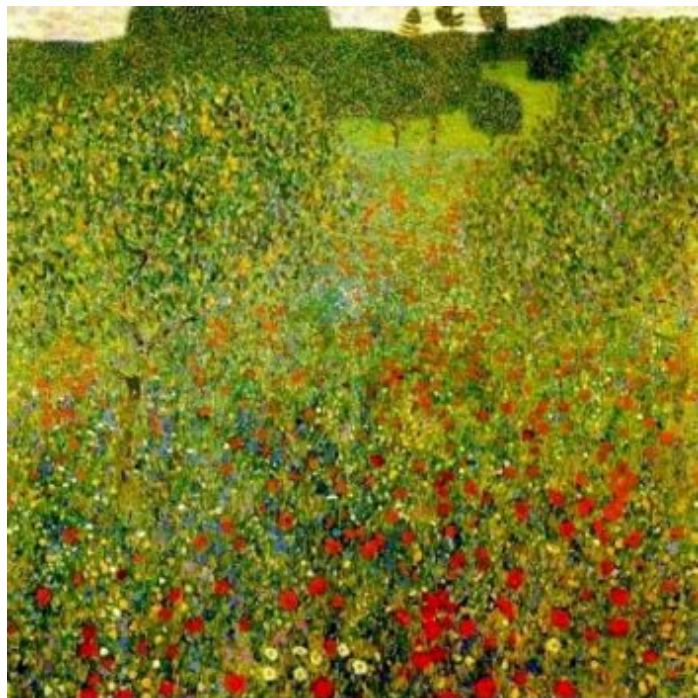
요한나 스타우트의 초상

미완성 1917~18년, 캔버스에 유채 70×50cm 빈 오스트리아 미술관



### 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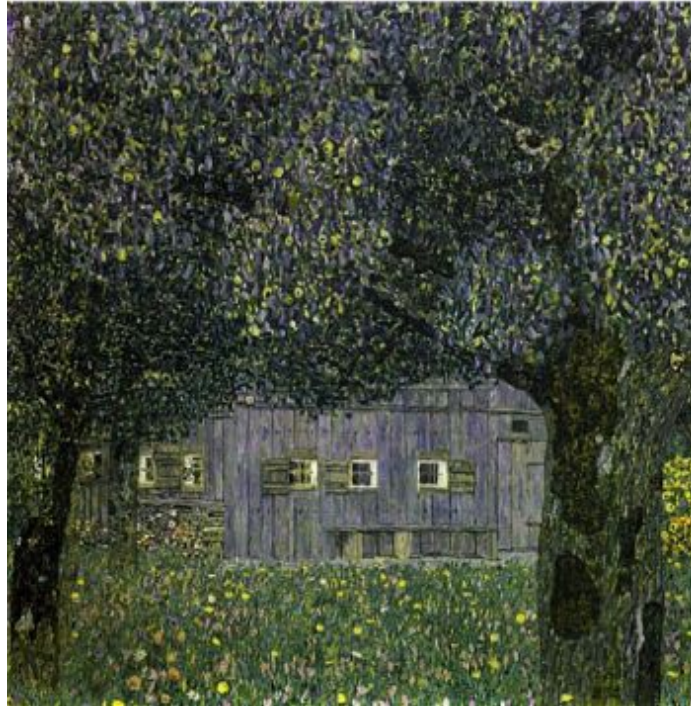
미완성 1917~18년, 캔버스에 유채 166×190cm 빈 오스트리아 미술관



### 개양귀비꽃이 만발한 초원



1907년, 캔버스에 유채 110×110cm 빈 오스트리아 미술관



▲  
오스트리아 북부의 농가

1911~12년, 캔버스에 유채 110×110cm 빈 오스트리아 미술관

책과 인터넷에서만 보아야 했던 클림트의 분신들,  
그 중에서도 특히 '키스'를 마주했을 때의 그 느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

**클**림트 이외에 또 한명의 화가 **에곤 실레**를 만나보자.

**클림트**가 **클림트**표 그림을 그렸듯이 **에곤 실레** 또한 **에곤 실레**표 그림을 그린 사람이라고 하면 설명이 될까.

그만큼 개성이 강한 그림을 그렸다는 얘기가.

화가라면 물론 누구나 자기만의 화풍으로 그림을 그리겠지만 나 같이 그림을 보는 안목이 부족한 사람은

**클림트**나 **에곤 실레**만큼 개성이 강하지 않으면 잘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

딱딱한 선과 강렬한 악센트로 거칠게 표현된 그의 그림 속 사람들은

신경질적인 것 같기도 하고...에로틱하기도 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것처럼 어둡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세포 하나 하나, 근육 하나 하나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좌우지간 독창적이다.



가족

1918년, 캔버스에 유채 152.5×162.5cm 빈 오스트리아 미술관





Embrace (Lovers II)

1917년 캔버스에 유채 100 x 170.2 cm 빈 오스트리아 미술관



어머니와 두아이

1917년





▲  
화가의 아내  
1912년



▲  
죽음과 소녀  
1915~16년, 캔버스에 유채 150×180cm 빈 오스트리아 미술관



▲  
창문



에곤 쉴레 일대기에 관한 글 <http://windshoes.new21.org/art-egon.htm>



현관홀

궁전답게 장식이 화려하며 천장을 받치는 4개의 남상주(男像柱)의 구성이 눈여겨 볼만하다.





궁전의 창문을 통해 내다 본 하궁과 정원  
문양으로 꾸며진 정원의 모습은 흥미로웠으나 전체적으로는 썰렁한 느낌이 들었다.



▲  
화려한 벽장식과 상들리에



▲  
천장화  
누구의 그림인지는...글쎄??



2007.08.03

그리도 소원하던 **클림트**의 그림을 본 후 뿌듯한 마음으로 **벨베데레 궁**을 나섰다.

마음은 뿌듯했지만 위장 속은 텅텅 비어있는 상태.

남역에 있는 **한국음식점**(분식집 비슷한)에서 **김밥**을 먹었으면 좋겠지만 거기까지 걸어갔다 오자니 발이 너무 아프다.

사실 **벨베데레 궁**에서 **남역**까지는 얼마 되지도 않는 거리였지만 발이 아플 땐 한발짝만 떼는 것도 괴로운 법이다.

일행중 대부분은 **벨베데레 궁**에서의 그림 관람을 초스피드로 끝내고 이미 **왼부른 궁전**으로 떠난 후였고 대장샘이 **슈니첼**을 사준다고 해서 7시쯤에 **서역**에서 만나기로 했다.

약속 시간까지는 1시간 20분 남았다. 참 애매한 시간이다.

지금 약속 장소로 출발하면 40분 이상 기다려야 할테고 그렇다고 다른 것을 구경하고 가기에는 시간이 모자르고...

"하는 수 없다. 다리도 아픈데 쉬는샘 치고 가서 기다리자."



▲

벨베데레 궁 정류장에서 D번 트램을 기다리는 중.



**ANKER**

3호선으로 갈아타기 위해 폴크스씨어터역에서 내렸다.

비엔나 어디서나 볼 수 있는 **ANKER** 빵집이 이 곳에서도 어김없이 보인다.

우리나라의 **크라운 베이커리**나 **빠리바게트** 쯤 되는 걸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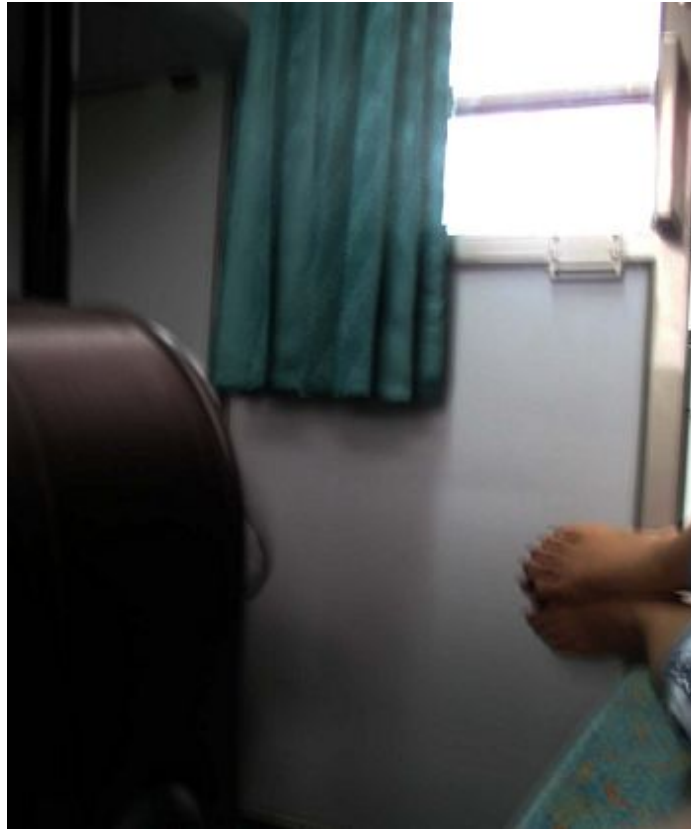


서역에 도착했다.  
이 곳에서 하염없이 기다렸는데...  
어랏! 대장쌈이 혼자서 나타나신다.  
왼부른 궁전으로 간 일행들이 슈니첼을 안먹고 왼부른 구경을 마저 하겠다고 했나 보다.  
사실 나도 슈니첼 안먹고 도나우 섬에 갔다오고 싶었는데...  
자꾸 개인 행동한다고 눈총 받을까 싶어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걸 꾸욱~ 참았는데...진~짜 속상하다.



▲  
오늘 바르샤바로 가는 밤열차를 타야하기 때문에 차라리 잘 됐다 싶어 호텔로 일찍들어 가  
호텔 로비에 있는 화장실에서 대강 씻은 후 출발 시각까지 휴식을 취했다.  
며칠째 너무 '빡' 세게 돌아다녔더니 온 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다.





바르샤바로 가는 기차를 타기 위해 남역으로 다시 와 결국은 아까 못 먹었던 김밥을 사먹고 기차를 탔다.  
세번째 유럽여행이지만 밤기차는 처음 타보는데 폭신하고 편한 침대에서도 제대로 못자는 내겐 그야말로 고문이 따로 없었다.



거의 눈만 감고 있다시피 하며 지루하디 지루한 밤을 보내고 아침을 맞았다.  
같은 칸에 있는 일행들의 수면을 방해할까 싶어 날이 밝고도 한참을 누워있다 열차 복도로 나와 창밖으로 내다본 바르샤바의 첫모습이다.

바르샤바는 또 어떤 곳일지 다시금 설레임으로 가슴이 뛰기 시작한다.

☞ '07 폴란드로 이어집니다.

## 라니의 여행앨범 7(동유럽-체,오)

블로그 Voyager <http://blog.daum.net/mirolove>

저자 ㉠anee(라니)

발행일 2015.07.17 13:39:45

 블로그